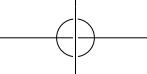


세상에서 우리 가족이
제일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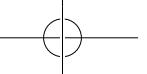
2019 인구교육 창작동화 공모전 수상 작품집

세상에서 우리가족이 제일 좋아요

최민경·이해중·오지현·윤경숙·탁교열·배은옥·김지연



 보건복지부 주관 한국경제TV 주최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사람들에 관한

감동적인 이야기

제가 초등학생일 때는 한 반에서 80여 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모여 공부를 했어요. 어떤 학교는 한 학급에 100명 가까운 학생들이 빼곡하게 들어앉아 공부하기도 했죠. 이를 ‘콩나물 교실’이라고 불렀습니다. 조회나 운동회를 하게 되면 운동장에는 아이들로 넘쳐났죠.

하지만 요즘은 아빠 엄마들이 자녀를 많이 낳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학교에 학생들이 많지 않죠. 한 반에 20명 남짓한 어린이들이 모여서 공부를 해요. 예전과는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농어촌에 가면 아이들이 없어 텅 빈 학교가 많고 폐교가 된 학교도 참 많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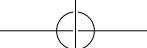
잘 알려진 대로 우리나라의 낮은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인구가 너무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줄어드는 것도 문제예요. 출산율이 계속 줄어들면 학교에는 공부할 학생이 적어지고, 회사에는 일할 직원이 모자라며, 나라에는 국방을 책임질 군인들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세금도 계속 감소할 테니 국가 살림도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그 영향은 개인과 가족을 넘어 사회와 국가 전체로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에 있죠. 그중 하나로 금년에 처음 ‘인구교육 창작동화 공모전’을 개최하게 되었답니다. 동화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체험하게 하며,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포용적 관점을 심어 주기 위한 것이에요. 나아가 결혼과 출산에 대해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가치관을 갖게 된다면 어린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는 훨씬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거라는 기대까지 담고 있어요.

인구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하면 대단히 복잡하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바로 내 가족과 친구들에 관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어른들은 결혼과 이혼, 임신과 출산, 입양과 양육, 그리고 이에 따른 수많은 현실적인 고충들을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린이들 시각에서 보면 의외로 간단하지 않을까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형, 누나, 언니, 오빠, 여동생, 남



동생. 가족끼리 서로를 부르는 호칭이에요. 하나, 대한, 경민, 재민, 유민, 지민, 지환, 민재. 학교에 가면 늘 만날 수 있는 정다운 친구들 이름이고요. 가족과 친구들을 지금보다 더 많이 사랑한다면 새로운 지혜와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긴 지혜와 용기로 마을마다 즐겁고 행복한 가족이 점점 많아지도록, 재미있게 뛰어놀 수 있는 친구들이 점점 늘어나도록 하면 어렵게 만 보이는 인구 문제들이 하나둘씩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책에 실린 일곱 편의 동화들은 어린이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형제자매 그리고 친구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사람들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신나는 동화 속 세상으로 여행을 떠나 볼까요?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양성일



차례

- 머리글 -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사람들에 관한 감동적인 이야기 004
- 수업을 시작하며 008

첫 번째 수업

우리 모두 우유 빚깔 010

두 번째 수업

아빠 새끼발톱은 왜 까매? 026

세 번째 수업

방귀 뿡뿡 날아가 042

네 번째 수업

비밀 말하기 축제 056

다섯 번째 수업

엄마가 가출했다 0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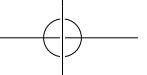
여섯 번째 수업

413일의 별 084

일곱 번째 수업

쌍둥이자리 096

- 수업을 마치며 110
- 공모전 심사 경위와 대상 선정 이유 112
- 작가의 수상 소감 114



수업을 시작하며

어린이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요.

이제부터 흥미로운 수업이 진행될 거예요.

어떤 수업이냐고요? 재미있고 감동적인 동화를 찬찬히 읽고 나서 느낀 점이나 자신이 생각한 것을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수업이에요. 동화에는 아름다운 그림도 등장해요.

동화는 모두 일곱 편이에요. 그러니까 수업도 일곱 차례에 걸쳐 진행되겠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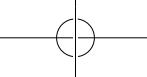
일곱 편의 동화는 각각 다른 내용을 담고 있지만 크게 보면 모두 가족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나와 내 동생 혹은 형과 누나, 오빠와 언니에 관한 이야기에요. 물론 아빠 엄마도 등장하죠. 예쁜 아가와 인자한 할머니 이야기도 나와요. 교실, 운동장, 놀이터, 병원, 공원 등에서 벌어지는 우리들의 이야기이자 바로 우리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주르륵 눈물도 나고,

때로는 까르륵 웃음도 터져요. 어때요? 흥미진진할 거 같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부터 수업을 시작할게요. 동화 속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셨나요?

첫 번째 동화의 문을 열겠습니다. 쉿, 조용히 들어오셔야 해요. 하나가 예쁜 원피스를 입고 외출을 서두르고 있네요? 어디를 가려는 걸까요?

저자 일동



우리 모두 우유 빛깔 ☀

“하나야, 준비 다 됐니? 어서 서둘러. 이러다 늦겠다.”

“거의 다했어요. 할머니.”

보라 이모가 선물해 준 하얀 원피스를 입고 거울을 들여다 보면서 쟁긋 미소를 지으니 거울 속의 내가 오늘따라 유난히도 예뻐 보였다. 내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오늘은 바로 아빠의 결혼식 날이다.

남들은 새엄마가 생기는데 뭐가 그리 신나느냐고 하지만 보라 이모는 백설 공주나 신데렐라의 계모처럼 나쁜 사람이 절대 아니다. 예쁘고 상냥한 보라 이모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나는 아무도 몰래 이모가 엄마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곤 했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내 소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물론 하늘나라에 계신 우리 엄마에게는 조금 미안하지만 분명히 이해해 주실 거라고 할머니가 말씀해 주셨다.

“하나야, 이제 보라 이모가 할머니 딸이고 또 하나 엄마가 되는 거야. 하늘에 있는 네 엄마도 그러길 바라고 또 이해할 거다. 그리고 너에게 귀여운 남동생도 생기잖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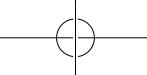
아참, 잠시 잊고 있었다. 보라 이모에게는 나보다 세 살 어린 아들이 있다고 했다. 그러니 아빠랑 이모가 결혼을 하면 나랑 그 아이도 남매가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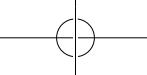
친구들이 동생이랑 같이 노는 것을 보면서 나도 동생이 갖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나에게도 동생이 생기다니! 보라 이모를 많았으면 아마 굉장히 귀엽고 멋진 동생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 될 것이다.

두근두근 콩닥콩닥 거리는 마음으로 결혼식장에 들어섰다. 결혼식장은 작은 식당이었는데, 예쁜 꽃과 리본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나랑 똑같은 하얀 원피스를 입은 보라 이모와 멋지게 양복을 차려입은 아빠가 우리를 맞아 주었다.

“하나야, 엄마한테 와. 우리 딸 오늘 너무 예쁘네?”

아직 쑥스럽고 어색해서 이모를 엄마라고 불러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모가 먼저 엄마라고 말하니 조금 이상했다. 하지만 웬지 모르게 기분이 좋았다. 나에게도 다시 엄마가 생기는





것 같아서.

“우리 다 함께 가족사진 찍읍시다. 하나야, 인사해. 네 동생 대한이. 대한이도 누나한테 인사해야지?”

아빠랑 똑같은 양복을 입은 채 아빠 손을 잡고 나타난 남자 아이를 본 순간, 나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까만 피부, 곱슬곱슬한 머리의 그 아이는 반갑게 웃으면서
“누나, 안녕?”

하고 인사했지만 나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할머니 뒤에 숨었다. 보라 이모는 얼굴도 하얗고 찰랑거리 는 긴 생머리를 가졌는데, 왜 저 아이는? 분명 외국인처럼 생겼는데도 이름은 왜 또 대한이고, 한국말은 어찌면 저렇게 잘하는 지 이상했다.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이 아이는 내가 상상했던 동생이 아니다. 그리고 이 조합은 내가 기대했던 가족의 모습이 아니다.

내가 다섯 살 때, 엄마는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다. 그렇게 나는 엄마를, 아빠는 아내를, 할머니는 딸을 잃고 말았다.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고 난 뒤, 우리는 저마다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아빠는 술을 마시고 밤늦게 들어오시는 날이 잣아졌고, 차마 버리지 못한 엄마 옷을 품에 안고 숨어서 우시는 할머니의 뒷 모습을 본 적도 많다.

그리고 나는 매일매일 엄마를 생각했다. 한글을 배우기 전에는 엄마 얼굴을 그렸고, 한글을 배운 다음부터는 편지를 썼다. 어떤 날은 눈물이 났고 또 어떤 날은 화가 났다. 엄마를 만날 수 없어 슬픈 날도 있었고 나를 두고 떠나버린 엄마가 미운 날도 있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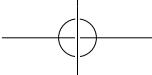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슬퍼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아빠는 술을 끊는 대신 운동을 시작하셨고, 할머니는 보육원으로 봉사 활동을 나가셨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학교에서 공개 수업을 하는 날이면 다른 친구들은 모두 엄마가 오시는데, 나만 할머니가 오시는 것도 싫었고, 나만 녹색 어머니가 아닌 녹색 할머니인 것도 정말 속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잠에서 깨어 물을 마시러 가다가 우연히 할머니와 아빠의 대화를 듣게 되었다.

“나는 죽은 내 딸보다 살아 있는 내 손녀딸이 더 중요하네. 나는 이제 보라를 영주 대신 내 딸 삼을 테니 자네도 아직 젊은 자네 인생, 그리고 한창 엄마 손이 필요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

그리고 며칠 후, 보라 이모가 우리 집에 놀러왔다. 할머니랑 함께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만났다고 하는데, 아빠와도 꽤 친해 보였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할머니가 아빠랑 이모를 소개해 주었다고 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이모는 대한이라는 남자애를 데리고 우리 집으로 이사를 왔다. 할머니는 창고로 쓰던 방 하나를 깨끗이 치우고 새 책상과 침대를 들여 그 아이 방을 꾸며 주셨다.

나는 아직 이모를 엄마라고 부르기가 불편한데, 그 애는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아빠를 아빠라고, 또 우리 할머니를 할머니라고 부르는 게 싫었다. 그중에서도 자꾸 나한테 누나라고 하는 게 제일 싫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오늘 우리 학교로 전학을 온다고 했다. 맙소사! 앞이 캄캄하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다.

“야, 너! 학교에서 나 알은척하지 마. 나 네 누나 아니거든!”

“위하나! 너 동생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당장 사과 안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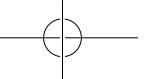
아빠의 화난 목소리가 들렸지만 모른 척하고 학교까지 뛰어 갔다. 자꾸 눈물이 났다.

수업 시간 내내 계속 대한이 생각이 났다. 쉬는 시간에 우리 교실로 달려와서 “누나!”하고 부를까 봐 조마조마했다. 혹시라도 복도에서 마주칠까 봐 화장실도 가지 않았다.

“3학년 2반에 아프리카에서 전학 온 애가 있대. 얼굴이 완전 초코 우유야.”

우리 반 소식통 규성이가 큰소리로 떠들자 애들이 웅성거리 기 시작했다.





“김규성! 인종 차별하지 마. 그럼 황인종인 우리는 다 바나나 우유냐? 흑인 중에도 얼마나 훌륭한 위인들이 많은데. 버락 오바마, 넬슨 만델라, 오프라 윈프리…….”

책벌레 수지는 항상 바른말을 잘해서 가끔 알집기도 하지만 오늘은 참 고마웠다.

“박수지, 왜 초코 우유 편드냐?”

“수지 말이 다 맞는데, 뭘 그래?”

나도 모르게 맞장구를 쳤다.

“너까지 왜 아래? 초코 우유가 네 동생이라도 되냐?”

“뭐라고?”

감추고 싶은 내 마음을 들킨 것 같아 나도 모르게 얼굴이 화끈거렸다.

“야, 농담이야. 근데 너 얼굴 뺨개졌다. 위하나는 딸기 우유 당첨!”

몇몇 남자애들이 키득거리는 소리를 들으니 대한이가 더 미워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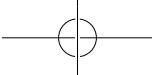
점심시간에 급식실에서 대한이를 만났다. 내가 알은척하지 말라고 화를 내서인지 다행히 대한이도 나를 못 본 척 그냥 지나갔다. 하지만 밥을 먹으면서도 내내 신경이 쓰였다. 슬쩍 쳐다보니 대한이는 뭐가 그리 즐거운지 싱글벙글한다.

집에 오니 아무도 없었다. 차라리 잘됐다. 누구에게도 방해받

지 않고 혼자 있고 싶은 기분이었으니까.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울고 싶었다.

그런데 책상 위에 작은 선물 상자가 놓여 있었다. 열어 보니 내가 너무 갖고 싶었던 스마트폰이다. 그리고 반듯반듯한 글씨로 적힌 편지 한 장이 나왔다.

“하나야, 안녕? 엄마야. 아직 엄마라는 말이 어색하지만 나는 너처럼 예쁜 딸을 갖게 되어서 너무 기뻐. 그런데 우리의 만남과 인연이 어린 너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마음이 아프구나. 엄마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보육원에서 자랐단다. 그래, 맞아. 할머니와 함께 봉사하는 거기가 바로 내가 살던 곳이야. 사고로 네 친엄마를 잃은 할머니가 내 손을 잡고 ‘내 딸하자.’고 하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그리고 의료 봉사를 갔던 아프리카에서 대한이를 처음 만났어. 전쟁과 가난으로 부모를 잃은 불쌍한 아기를 보니 내 어린 시절이 생각나서 견딜 수가 없었단다. 그래서 내가 엄마가 되어 주기로 결심했지. 할머니가 엄마의 엄마가 되어 주신 것처럼 말이야. 비록 그때 나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엄마가 되었고, 내 성을 따서 ‘이대한’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거야. 이제 아빠 성을 받아 ‘위대한’으로 다시 성이 바뀌게 된 거고. 너는 항상 밝고 어른스러워서 대한이를 자연스럽게 가족으로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어. 이제 겨우 열세 살밖에 안 된 너에



게도 시간이 필요했을 텐데 엄마가 많이 미안해. 당분간 대한이를 보육원 원장님께 맡기기로 했으니 우리 시간을 갖고 좀 더 생각해 보자. 그래야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을 테니까.”

보라 이모, 아니 보라 엄마에게 이런 상처가 있는 줄은 몰랐다. 그리고 초코 우유, 아니 대한이가 그동안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지 상상해 보았다.

나도 친엄마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참 힘들었는데, 대한이는 나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 나보다 더 힘든 일을 겪었다고 생각하니 내가 한 행동들이 부끄럽고 미안했다. 스마트폰을 꺼내 보라 엄마의 번호를 눌렀다.

“엄마, 대한이 집으로 데리고 오세요. 그 대신 학교에서는 우리 관계 절대 비밀이에요.”

집으로 돌아온 대한이는

“고마워, 누나. 비밀 꼭 지킬게. 약속해.”

하면서 새끼손가락을 내밀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대한이는 학교에서 유명 인사가 되었다. 어디를 가나 눈에 띠는 걸모습과는 어울리지 않게 유창한 한국어에, 매운 김치는 또 얼마나 잘 먹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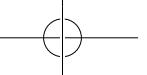
물론 이름보다는 초코 우유, 초콜릿, 짜장면 등의 별명으로 더 많이 불렸지만 친구들의 그런 놀림에도 대한이는 신기할 정도로 씩씩하고 명랑했다. 게다가 기특하게도 약속도 잘 지켜서



아무도 우리가 한집에서 같이 산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처음에는 대한이의 까만 얼굴, 그래서 유난히도 하얀 이가 낯설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는데 같이 지내다보니 점점 익숙해졌다. 애교 많고 쟁쟁한 대한이는 아빠 구두도 닦아 드리고, 할머니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내 심부름도 잘했다. 그래서 가끔은 내가 원했던 귀여운 동생 같았다. 다만 피부색이 달랐을 뿐이지만 그 차이가 내게는 여전히 멀게만 느껴졌다.

학예회 날이 되었다. 글짓기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대한이가 발표를 한다고 했다. 강당에 모인 다른 아이들은 가족들과 함께 자리를 잡고 앉았지만 우리는 서로 한 가족이 아닌 것처럼 멀찌감치 떨어져 앉았다. 엄마랑 할머니는 내 옆에, 아빠는 대한



이 옆에.

드디어 차례가 되어 대한이가 무대 위에 서자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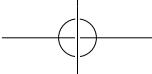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위대한입니다.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태어났지만 엄마가 가슴으로 낳고 아빠가 사랑으로 품어 주셔서 한국인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멋진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라고 ‘대한’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셨고 여기에 딱 맞는 아빠의 성이 저를 ‘위대한’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제 이름처럼 위대한 사람이 되어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서 남수단을 돋고 싶습니다. 저의 가족이 되어 주신 엄마, 아빠, 할머니, 누나. 친구가 되어준 한빛초등학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대한이가 발표를 마치자 뜨거운 박수와 함성이 강당을 가득 메웠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부모님도 있었다. 내 심장도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나는 가만히 엄마 손을 잡았다. 엄마는 나를 보고 웃어 주었지만 눈가는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다음날, 나는 대한이와 함께 학교에 갔다. 이제 더 이상 대한이가 우리 가족이고 내 동생이라는 사실이 부끄럽지 않았다.

“어? 초코 우유가 정말 딸기 우유 네 동생이었어?”

등굣길에 만난 규성이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래, 바나나 우유. 얘가 내 동생 위대한이다. 색깔이 다르면 어때니? 우리 모두 우유 빛깔인데. 그래서 내 이름이 위(We)하나야. 우리는 하나라고!”

“와, 우리 누나 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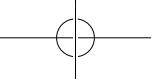
대한이는 환하게 웃으면서 엄지를 척 들어올렸다.

함께 생각해 볼까요?

1. **하나는 귀엽고 멋진 동생일 것으로 기대하던 대한이를 처음 본 순간, 왜 너무 놀라 입을 다물 수가 없었던 걸까요?**

2. **나와 머리카락이나 피부색이 다르고, 외모나 쓰는 말이 같지 않다고 해서 놀리거나 차별하는 게 왜 옳지 않은 행동일까요?**

3. **이제는 하나 엄마가 된, 보라 이모가 말한 ‘진정한 가족’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아빠 새끼발톱은 왜 까매?



내가 육아 휴직을 하고 세 딸들을 돌보겠다고 했을 때 부모님은 세상이 많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시면서도 뭔가 탐탁지 않은 얼굴이었다.

“할 수 있겠니? 애들 돌보는 게 엄마한테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것도 셋씩이나…….”

“얼마나 좋아요. 덕분에 아이들이랑 추억도 많이 만들고 1년 푹 쉰다고 생각하려고요.”

그런 어른들의 얼굴을 애써 외면하며 호언장담한 지 일주일 남짓, 하지만 아이들과 시작하는 아침은 전쟁의 연속이다.

네 살, 다섯 살 그리고 여섯 살.

서둘러 출근하는 아내를 배웅하고 나서 아이들 밥 먹이고 세수와 양치질 시키고 옷 갈아입히고 나면 이제는 원하는 머리로 묶어 줄 차례다.

무딘 아빠의 손끝으로 만들어 낼 수 머리는 한계가 있다. 인터넷을 뒤져 가며 연습한 어설픈 땋은 머리를 뿌듯하게 바라보는 나를 향해 여섯 살 큰딸 경민이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입을 빼죽거린다.

“엄마는 이렇게 안 해줬단 말이야!”

그나마 무딘한 다섯 살 난 둘째딸 재민이는 단발머리에 리본 편 하나만 꽂아 줘도 그냥 좋단다.

“괜찮아, 아빠. 나는 예쁜 것 같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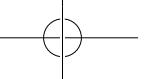
한 살 차이 언니 덕분인지 또래 아이들보다 말이 야무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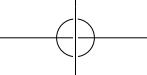
시간별로 맞춰 놓았던 알람 중 마지막 알람이 울린다. 이제는 신발을 신고 현관을 나서라는 최후통첩!

아파트 안에 있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막내는 상관없지만 경민이와 재민이가 다니는 유치원 버스는 시간을 놓치면 오래 기다려 주지 않는다.

“얘들아, 신발 신고 나가자! 안 그러면 유치원 버스를 놓칠지도 몰라!”

경민이와 막내 유민이는 벌써 신발을 신고 기다리고 있는데, 재민이는 아직이다.





“재민아, 왜 그래? 빨리 신발 신어!”

새로 산 지 한 달도 안 된 반짝이는 핑크색 구두에 발을 넣더
니 그 구두를 안 신을 거란다.

“네가 좋아하는 구두잖아. 빨리 신고 나가자. 이리다 유치원
버스 놓치겠어!”

조급한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 녀석은 도통 신발 신
을 생각을 않는다.

원래는 무던하게 말을 잘 듣는 아이인데, 오늘은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다.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지만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고
달래 본다.

“재민아~ 예쁜 구두 신고 얼른 유치원 가자~ 친구들이 기다
리겠어.”

이유 없이 버티고 있는 재민이를 달래다 결국 화가 솟구쳐
버렸다.

“이재민! 얼른 신발 안 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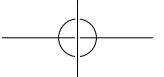
한참을 버티던 재민이가 내 호통에 닭똥 같은 눈물을 펼구며
이야기한다.

“발이 비좁단 말이야!”

뭐…… 뭐?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에 답답함과 짜증이 밀려 올라온





다. 생트집을 잡아도 정도껏이지 시간에 쫓겨 결국 언니가 신던 허름한 운동화를 신겨서 아파트 앞으로 뛰쳐나간다.

이미 도착해 기다리고 있던 버스에서 선생님이 내려 눈물을 글썽이는 재민이를 보고 “울었어?” 하며 톡톡 달래 준다.

버스에 올라 안전벨트를 매는 동안에도 손을 흔드는 아빠 쪽으로는 시선도 주지 않는다. 그래도 유치원에 무사히 보냈다는 안도감에 힘이 쭉쭉 빠진다.

셋째 유민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열자 재민이가 던져 놓은 핑크색 구두가 유난히 반짝거린다.

꽝이 나는 금빛 앞코에 보석이 빙 둘러 박혀 있고, 펄이 잔뜩 뿐여 반짝이는 예쁜 새 구두인데 뭐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건지.

그리고 뭐? 빨이 비좁다고?

화풀이 한답시고 구두를 한쪽으로 툭 차고는 집 안으로 들어선다.

잠시 소파에 누워 여기저기 널브러진 전쟁터 같은 아침의 흔적을 둘러본다.

식탁 위의 그릇과 수저는 말라 가고 있고, 아이들이 입었던 잠옷은 구석구석 굴러다니고 있다. 엄마까지 머리카락이 긴 여자만 넷. 잘근거리는 머리카락에 청소는 해도 해도 끝이 없다. 아, 육아가 이렇게 힘든 줄 진작 알았다면…… 휴직을 무르고

다시 출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오후 4시 30분.

아이들이 돌아올 시간이 다가온다.

나도 모르게 심장이 콩닥거린다.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하루가 지나갔다.

먼저 마친 유민이의 손을 잡고 유치원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다른 엄마들과 나누는 인사도 이제는 제법 자연스러워졌다.

아이를 배웅 나온 할머니들은 아직도 아빠가 아이를 돌보는 모습이 불안하고 낯설어 보이는지

“아이 보기 힘들죠?”

하며 말을 건넨다.

속마음은 ‘네!’하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아니요.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데요. 지금이 아니면 언제 또 이런 시간을 가지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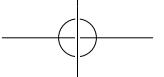
하고 부러 크게 웃으며 너스레를 떤다.

경민이와 재민이는 유치원 버스에서 내려 선생님과 인사를 하자마자 나한테 가방을 던져 주고는 놀이터로 달려간다.

멋모르는 유민이도 아빠 손을 뿌리치고는 언니들을 따라 뛰어가기 바쁘다.

“언니, 같이 가!”

아침에 화를 낸 게 미안해서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는데,



재민이는 벌써 잊은 모양이다.

놀이터에서 한참을 놀다가 해가 어둑어둑 할 무렵 집으로 향한다. 경민이는 더 놀고 싶은 눈치지만 밥도 먹어야 하고, 오늘 입었던 옷도 빨아야 하고, 살림하는 아빠는 더 이상 기다려줄 수가 없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전화벨이 울린다.

이제 막 글자를 익혀 가는 경민이가 휴대전화기에 적힌 이름을 보고

“엄마다!”

하고 외친다.

“여보세요?” “뭐해요?”

“이제 막 애들이랑 놀이터에서 놀다가 집으로 들어왔어요. 언제 와요?”

“미안해요. 오늘 야근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늦지는 않을 게요.”

“네…….”

내가 예전에 야근하는 날이면 아이들 엄마 마음도 그랬겠지? 섭섭함이 먼저 앞서는 옹졸한 남편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다.

아이들 저녁을 챙겨 먹이고는 거실 바닥에 누워 뒹굴 거리는 재민이를 두고 경민이와 유민이를 먼저 씻겨 잠옷으로 갈아입

혔다.

그러고는 청개구리처럼 엉뚱한 소리만 하는 재민이를 어르고 달래서 겨우 욕실로 들어갔다. 머리를 감기다 샴푸 물이 얼굴에 조금만 튀어도 “아빠, 미워!”, 샤워기 물이 조금만 차가워도 “아빠, 미워!”, 샤워하는 10분 남짓 시간 동안 100번은 들은 것 같은 “아빠, 미워!” 소리에 다섯 살 어린아이처럼 진심으로 마음이 상하려고 한다.

아빠는 어른이지만 사람이고, 이렇게 너희를 돌보는 게 처음이고,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데…….

씻고 나와서 물기만 닦고는 후다닥, 발가벗고 도망 다니는 재민이를 겨우겨우 붙잡아 어렵게 팬티만 입히고 나서야 먼저 씻겼던 경민이와 유민이가 생각났다.

빼꼼히 방문을 열어 보니 피곤했는지 벌써 잠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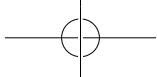
둘째 재민이에게는 유별스레 엄한 경민이는 막내 유민이에게 만큼은 엄마처럼 자상하다. 손을 꼭 잡고 마주보고 잠든 모습이 천사가 따로 없다.

땀이 날까 봐 홀이불 하나를 덮어 주고는 조용히 문을 닫고 거실로 나왔다.

“재민아, 언니랑 유민이 자니까 우리 조용하게 놀자!”

“응, 알았어.”

힘없이 소파에 기대어 텔썩 앉는데, 한참을 도망 다니던 재민



이가 옆으로 다가와서 말을 건다.

“아빠!”

“왜!”

뾰로통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빠, 힘들어?”

“응! 힘들어!”

하고는 고개를 팽 돌려 버렸다.

잠옷을 주섬주섬 들고 와서는

“아빠! 나 혼자 입을 수 있어.”

하고는 엉성하게 잠옷을 챙겨 입는다.

그리고는 언니와 동생이 먼저 잠이 들어 심심했는지 아빠 다
리에 코알라처럼 매달려 애교를 부린다.

피식, 웃음이 난다.

다리에 매달려서 한참을 놀던 재민이가 아빠 발을 빤히 보
더니

“아빠, 새끼발톱은 왜 까매?”

하고 물어 본다.

그리고 보니 신발 구석자리에 치여서 까맣게 변한 새끼발톱
이 눈에 들어온다.

보여 주기 부끄러웠는지 나도 모르게 까만 새끼발톱을 다른
발로 가리며 말했다.

“아빠 새끼발톱이 아파서 그래.”

“그럼 나중에 다시 하얗게 바뀌는 거야?”

“아니, 아픈 발톱이라서 이렇게 살아야 돼.”

골똘하게 생각하던 녀석이 좋은 생각이라도 난 듯

“그럼 아빠 발에서 나가라고 해! 새끼발톱이랑 발가락이랑
같이!”

음……. 재민이를 무릎에 앉혀 품어 안고는 잠시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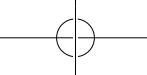
그리고 불현듯 재민이가 아침에 했던 “발이 비좁다.”는 말이
생각났다.

“재민아, 그런데 아침에 왜 새 구두가 싫다고 했어?”

“싫다고 안했는데? 비좁다고 그랬는데?”

“그래. 왜 비좁다고 했어?”





“아, 그건 내 빨이 커져서 신발 집이 작아져서 그랬어.”

그제야 그 말뜻이 이해가 됐다.

둘째로 태어나서 질투 많은 언니 눈치 보느라 예쁘다는 얘기
도 마음껏 못해 줬었다.

그리고 연이어 태어난 동생 때문에 중간에 치여서 어리광 한
번 못 피웠던 재민이다. 그저 성격이 무던하고 착하다고만 생각
했었다.

그런데 새끼발톱 같이 치여 있었을 재민이의 까만 마음을 생
각하니 내 마음도 아파 왔다.

너무 딱 맞는 구두를 산 건지 아니면 재민이가 너무 빨리 자
라는 건지. 어찌됐든 그 말도 못 알아들은 아빠가 된 것 같아 미
안한 생각이 들었다.

“재민아, 만약에 우리 집이 손바닥만큼 작아져서 누군가 나
가야 한다면 누가 나가야 할까?”

“우리 집은 손바닥 보다 큰데?”

“그러니까 만약에.”

“음, 안 돼! 아무리 비좁아도 엄마, 아빠, 언니, 유민이, 재민
이. 우리 가족 다섯 명이랑 같이 살 거야.”

“그럼 우리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생기면 집에서 나가라고
할 거야?”

“안 돼! 그러면 내가 안 아프게 호~ 해줄 거야!”

“그럼 됐어!”

쓰담쓰담 재민이의 배를 만져 주다 내려다보니 어느새 잠이
들었다.

잠든 재민이를 살포시 들어 안아 경민이와 유민이 사이에 눕
혀 주며 작게 이야기했다.

“경민아, 재민아, 유민아. 가족이란 그런 거야. 좁으면 좁은
데로 부족하면 부족한 데로 그리고 누군가 아프면 더욱 꼭 품
어 안을 수 있는 것 말이야.”

띠띠띠띠 띠리링~

현관문이 열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이들 엄마가 들어왔다.

“쉿! 아이들 금방 잠들었어요.”

“오늘 고생 많았죠?”

아내가 옆에 다가와 내 어깨에 손을 얹으며 이야기한다.

“아니요.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하게 행복한 날이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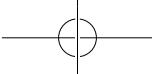
무슨 일이지 하는 의아한 얼굴로 쳐다보는 아내에게 말한다.

“여보, 내일은 재민이 새 구두 사 줘야겠어요.”

“새로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리고 경민이 거 물려 신을 것
도 많은 걸요.”

“그래도요. 그래야 재민이 발가락 가족이 넓은 집에서 더 행
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지 하는 표정의 아내를 보고 있으니 아이들과 아빠



만의 비밀 이야기가 생긴 것 같아 팬스레 어깨가 으쓱해진다.

하루만큼 더 자란 아이들처럼 초보 육아 아빠도 하루만큼 더
자란 것 같아 스스로가 대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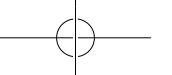
오늘따라 흥하게만 보였던 까만 새끼발톱이 자랑스럽고 사
랑스럽게 보인다.

함께 생각해 볼까요?

1. 나는 왜 잘 다니던 회사를 휴직하고 '살림하는 아빠'
가 된 걸까요?

2. 재민이가 새로 산 지 한 달도 안 된 반짝이는 핑크색
구두를 신지 않으려고 한 이유는 뭘까요?

3. 아빠의 새끼발톱이 왜 까맣게 변했을까요?



방귀 뚱뚱 날아가



5학년 3반 교실은 오늘도 시끌시끌하다. 우리가 단체로 사기 를 당했기 때문이다.

“야, 솔직히 우리가 먼저 태어났는데, 왜 황금 돼지를 양보해야 하냐?”

“내 말이 그거야. 이제껏 황금 돼지로 살아왔는데, 그동안 내 인생은 뭐가 되냐?”

“크크큭. 너 인생 얼마나 살았다고. 할아버지냐? 그리고 바뀐 게 아니라 잘못된 정보였어. 나는 처음부터 알았어.”

“대국민 사기극 아니냐. 우리 엄마도 몰랐는데.”

“맞아, 우리 엄마도. 그래서 다른 학년은 안 그런데 우리 5학

년만 8반까지 있잖아.”

“힝~ 그럼 이제 나 부자 안 되는 거야? 황금 돼지띠는 부자가 된다며.”

쉬는 시간이 끝나는 음악 소리가 들리고 담임 선생님이 탁자 위에 놓인 종을 땡땡땡 친다.

“자, 조용~ 이제 수업 시작해야죠. 5학년 3반은 다 건강하고 멋지게 클 거예요. 선생님은 우리 반 친구들이 황금 돼지띠든 붉은 돼지띠든 상관없이 한 명 한 명 다 소중하고 좋아요.”

“크크큭, 선생님 똥통에 빠진 돼지는요?”

반 친구들 모두가 발까지 구르며 웃어 댔고, 내 얼굴은 점점 새빨갛게 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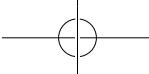
“자자, 조용~ 현민이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친구들끼리 나쁜 말 하면 안 돼요. 교과서 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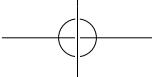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는데, 현민이가 나를 훤히 보더니 “똥통~ 똥통~” 깐죽거리며 앞서간다.

‘똥통에 빠진 돼지’라니! 세상에!

현민이 엉덩이를 뻥 차 주고 싶었다.

꿀떡, 산소를 삼켜 진정하고 현민이에게 달려가서 소리를 질렀다. 화를 낸 건 후련했는데, 아뿔싸! 그 와중에 나는 또 방귀를 뀌고 말았다. 내일은 더 업그레이드된 별명이 생길 것 같아서 학교에 가기가 싫다. 언제부턴가 나도 모르게 배에 자꾸 힘





을 주게 되고 방귀가 자주 나온다.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이 생
긴 걸까.

엄마에게 달려가 안기고 싶은데, 엄마 품에는 황금 돼지 왕자
님이 안겨 있을 게 뻔하다. 원래는 내가 황금 돼지 공주님이었
지만 갑자기 나는 그냥 돼지란다. 올해 태어나는 아기들이 황금
돼지고 우리는 가짜라니. 그 충격에서 헤어나기도 전인 세 달
전, 우리 집에 진짜 황금 돼지 한 마리가 들어왔다. 정말 황당하
기 짝이 없다.

“우리 귀여운 돼지 왔어?”

“돼지라고 부르지 말라니까!”

“아니 왜~ 전에는 돼지가 귀엽고 똑똑해서 좋다면서. 엄마도
우리 돼지 공주님 너무 좋은데?”

“이제 아니라니까! 지긋지긋해!”

내 방문을 꽁 닫고 침대에 누웠다. 내 마음을 찰떡같이 알아
주던 엄마는 이제 없다. 중2병 언니와 무뚝뚝한 아빠랑 다르게
우리 둘은 정말 환상의 짹꿍이었는데.

뿌우웅 뿩뿡.

또 방귀가 나온다. 엄마는 내가 방귀쟁이가 되어 버렸다는 걸
알기는 할까. 내 몸에 독가스가 가득할지도 모르는데 걱정도 안
하나.

“학교 다녀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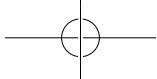


“그래, 오늘도 고생했어. 저녁 먹고 싶은 거 있니?”

“아니요, 괜찮아요. 지환이 자요? 저도 30분만 잘 테니까 좀
이따 깨워 주세요.”

엄마랑 아빠는 언니가 공부하느라 고생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볼 때는 아니다. 나는 멀리뛰기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 치
지만 언니는 공부만 조금 잘한다. 그러면서 나한테 자기는 지금
학문에 뜻을 두는 지학의 나이라며 공자 흉내를 낸다. 내가 볼
땐 중2병 허세다.

“여보, 나 왔어요. 아이고, 우리 지환이 까꿍. 아빠 보고 웃네.
아빠가 빨리 손 씻고 안아줄게.”



“꺄꺄!”

지환이가 기분이 좋은지 두 손을 모으며 웅알웅알 한다.

또 배가 단단해진다.

뽕. 뿌부붕.

“하하하, 우리 지민이는 방귀로 아빠한테 인사하네?”

오늘따라 아빠도 밍고 눈물이 난다. 나는 엉엉 울어 버렸다.

이제 다 컸다고 생각했는데, 방귀쟁이에 울보라니. 창피해서 더 크게 울어 버렸다.

똑똑~

“지민아, 배 안 고파? 언니랑 샐러드 먹으러 갈까?”

샐러드라니. 나는 고기를 좋아하지만 요즘 엄마가 자꾸 채소 요리만 해줘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더욱 서러운 마음이 들었다.

“싫어, 안 먹어. 언니는 아무것도 몰라.”

“언니 들어갈게. 그럼 언니랑 오랜만에 놀이터 가자. 오늘 날씨도 좋고, 언니 다음주에 멀리뛰기 수행 평가 있잖아. 지민 스승님께서 한 수 가르쳐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치, 알겠어. 잠깐만 기다려.”

“멀리뛰기는 도약을 잘해야 돼. 나 뛰는 거 잘 봐. 이렇게 팔을 최대한 뒤로 하고 팔 원심력 이용해서 몸을 쭉 펴.”

“이렇게?”



“아니, 발가락 쪽으로 힘줘서 바닥을 세게 밀어야지. 이렇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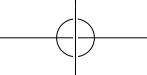
그리고 무릎을 당겨 멀리 갈 수 있게.”

“너는 발바닥에 쿠션이 달린 것 같아. 왜 이렇게 잘해?”

“내 팔이 좀 푹신하긴 하지. 그래서 달리기도 잘하는 거야. 멀리 잘 뛰는 상상을 먼저 해보고 그다음 뛰면 더 좋아.”

“오~ 마인드 컨트롤까지. 완전 전문가인데.”

“하하. 아, 이렇게 뛰니까 시원하다.”



“응, 나도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수행 평가 에이플러스 맞으면 아이스크림 사 줄게. 이제 잠깐 쉬자.”

“응. 오랜만에 같이 그네 탈까?”

“좋지. 대신 이번에는 너무 쌩쌩 타지 말고 살살 천천히 타자.”

“하하. 알겠어.”

언니가 중학생이 되기 전에는 놀이터를 함께 자주 갔었다. 그 러고 보니 깔깔대며 웃던 순간에는 언니가 항상 내 옆에 있었다. 언니는 내가 태어났을 때 어땠을까. 나는 지환이가 빨리 태 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태어나니까 괜히 심술 도 나고 별로다. 꿈뻑 꿈뻑 눈을 맞추며 싱긋 웃을 때는 귀엽긴 하다. 그래도 안 좋을 때가 더 많다.

그런데 언니는 내가 태어났을 때 아직 아기였으니까 더 싫지 않았을까. 내 친구는 어릴 때 자기 왕국의 침략자인 동생을 꼬집기도 하고 괴롭혔다는데, 우리 언니는 옛날부터 항상 내 손을 꼭 잡고 예쁘다고 해줬었다.

“지민아~”

“응, 언니.”

“우리 어릴 때 기억나?”

“언제?”

“언니 방귀대장 뽕뽁이였을 때.”

“크큭. 그거 우리 초등학교 때 같이 봤던 프로그램이잖아.”

왜 언니가 방귀대장이야?”

“그때보다 더 어릴 때. 언니 일곱 살 때. 지민이 네 살이라 너 무 어렸나?”

“글쎄, 잘 기억 안 나. 사실 내가 요즘 방귀를 많이 뀌는데.”

“언니 그때 너무 뽕뽀거려서 유치원에서 놀림 받았어.”

“언니도 그랬어? 지금은 다 나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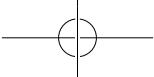
“응. 지민이도 야채 잘 먹고 배 따뜻하게 하면 나을 수 있어. 언니가 그때 한의원에 갔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배에다가 뜸 떠 주시면서, 야채 많이 먹고 따뜻한 물 잘 마시라고 그랬어.”

“그래서 엄마가 요즘 야채를 많이 준 건가? 나는 엄마가 나 무슨 음식 좋아하는지도 까먹은 줄 알았어.”

“하하, 우리가 지민이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데. 지환이도 지민이 너한테 제일 잘 웃어 주더라. 그런데 요새 너를 보니까 내가 그렇게 방귀 많이 뀌던 때가 가끔 그리워.”

“무슨 소리야? 나는 요즘 방귀가 자꾸 나와서 너무 짜증나는데.”

“그때 아빠가 언니한테 비밀을 하나 알려줬는데, 그렇게 스스로 조절이 안 되는 방귀가 나올 때는 그 방귀를 타고 멀리 여행을 할 수 있는데. 가고 싶었던 곳으로. 냄새가 지독할수록, 소리가 클수록, 방귀 힘이 세져서 더 멀리 갈 수 있다고 했어. 크큭, 웃기지?”



“그게 말이 돼? 뭐가 웃겨?”

“크크큭, 신기한데 진짜야. 지민이가 아까 멀리뛰기 하기 전에 머릿속으로 그려 보면 더 잘된다고 했지? 그것처럼 머릿속으로 가고 싶은 곳을 생각하면 승~ 날아갈 수 있었어. 지민이 방귀 풀 때 언니도 옆에서 똑같이 하면 우리가 같이 두 배로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을 텐데, 언니는 이제 그 방법을 잊어버린 것 같아서 그게 아쉬워.”

“크크큭 크크큭, 그게 무슨 소리야. 언니는 진짜 엉뚱해. 크크큭.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세 명이니까 지환이 커서 셋이 같이 그런 방귀가 나오면 우주여행도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언니는 동생이 지민이랑 지환이 두 명이나 있어서 너무 좋아.”

“나도 언니도 있고 동생도 있어서 너무 좋아.”

“우리 가족이 있어서 행복해.”

“나도. 언니 그 열두 살에 부자가 된 키라 기억나? 언니 열두 살 때 그거 따라하면서 부자 된다고 그랬었잖아. 나는 지금 열두 살인데, 우리 가족이 있어서 벌써 마음이 부자야.”

“하하. 엄마 아빠가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 감동하시겠다. 이 얘기 해주자.”

“그래. 이제 집에 들어가자.”

“엄마~ 아빠~ 우리 왔어.”

“우리 예쁜 두 딸 왔어? 지민이 마음 다 풀리고 언니랑 재밌게 놀았어?”

“응. 엄마 아빠. 우리는 우리 가족이 있어서 참 행복해. 마음이 우주 최강 부자야.”

“아이고. 엄마 아빠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우리 가족 모두 사랑해!”

“다시 태어나도 엄마의 둘째 공주로 태어나고 싶어.”

“하하. 우리 딸 이리 와. 엄마가 꼭 안아줄게.”

엄마 품에 안기는 순간 배가 따뜻해지면서 가스가 다 녹아버린 것 같았다.

‘아직 다 나오면 안 되는데…… 나도 언니처럼 신기한 방귀 여행 한 번은 가봐야 하는데.’

엄마 볼에 쪽~ 뾰뽀를 하고 빨리 품에서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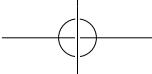
아빠 볼에도 쪽~

지환이는 아직 아がら 볼이 너무 작아서 손등에다가 쪽~ 그때였다. 지환이가 갑자기 영차 하더니 뒤집어서 나를 보고 웃었다.

“어머, 지환이 봐. 지민이가 뾰뽀해 주니까 뒤집기를 하네.”

“우와. 지금 처음으로 뒤집은 거야. 이거 진짜 빠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주가 개구리에 뾰뽀하니까 왕자님으로 변한 것



처럼. 하하, 우리 지환이가 개구리였다는 건 아니지만.”

“응. 지환이 지금 마음에서 우러난 미소를 짓고 있는 거야. 나는 지환이가 그냥 웃는 거랑 지금처럼 깊은 미소 짓는 거랑 차이도 알아. 우린 잘 통해.”

“그럼. 우리 가족은 모두 잘 통하지. 특히 우리 지민이는 엄마랑도 아빠랑도 언니랑도 지환이랑도 정말 특별하고 소중한 사이야. 가끔은 서로를 너무 사랑해서 섭섭할 때도 있지만, 지금처럼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한 한 가족이 되는 계기가 될 거야. 모두 사랑해.”

우리 가족은 꼬물거리는 지환이를 가운데 두고, 동그랗게 불어서 사진을 찍었다. 이 순간을 나중에 지환이에게 들려주고 싶다. 지환이가 조금 더 크면 내가 놀이터에 같이 가서 지환이가 뒤집기를 한 오늘을, 내가 방귀대장이었던 이 순간의 추억을 얘기해 줘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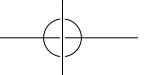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엄마 품에서 간신히 지켜낸 마지막 방귀가 웬지 곧 나올 것 같다. 뽕~ 너무 조그맣다. 집 앞 놀이터 밖에 못 갈 것 같다. 세상 따뜻한 미소가 내 얼굴에 번지고 숨어 있던 가스들마저 다 녹아 버린다.

함께 생각해 볼까요?

1. 지민이가 엉엉 울어 버린 이유가 뭘까요?

2. 동생이나 친구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 나도 지민이 언니처럼 친절하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다정하게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을까요?

3. 가장 최근에 가족사진을 찍은 게 언제인가요? 가족사진에 얹힌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비밀 말하기 축제

엄마랑 아빠는 내가 네 살 때 이혼을 하셨어요. 아빠가 우리 집을 떠나던 날 밤 아빠는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분간 민재에게 우리의 이혼은 비밀로 하지.”

엄마 아빠는 내가 잠들었다고 생각했나 봐요. 나는 눈은 감고 있었지만 아직 잠들지 않아서 아빠의 목소리를 분명히 들었어요. 엄마와 아빠의 이혼은 이렇게 나에게 비밀이 되었어요. 난 ‘당분간’이라는 시간이 언제까지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비밀이 아니라고 말할 때까지 그냥 비밀로 하기로 했어요.

아빠가 떠나고 엄마랑 나랑은 할머니네 집으로 이사 왔어요. 한동안 엄마는 아주 많이 힘들었어요. 아침에 눈이 많이 부은

채로 회사에 갔어요. 그래도 내 볼에 뾰족해 주는 걸 잊지는 않으셨어요. 할머니는 그런 엄마를 보며 우셨어요. 잘은 모르지만 그 비밀 때문인 것 같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제 엄마는 눈이 부은 채로 회사에 가지 않아요. 할머니도 더 이상 울지 않아요.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아빠를 만났어요. 지금은 두 달이나 세 달에 한 번 아빠를 만나요. 아빠는 나를 만날 때 선물을 사오세요. 아빠를 만날 때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짹꿍 수첩이 가 복도에서 뛰다가 선생님께 꾸중들은 것도, 내가 그린 그림이 교실 뒤 게시판 맨 위쪽 세 번째에 걸려 있다는 것도, 다음주에는 ○○랜드로 현장체험학습을 간다는 것도, 공부 시간에 물통을 쏟아서 『여름』책이 쭈글쭈글해졌다는 것도……. 아빠는 내 얘기를 듣기만 해요. 가끔씩 웃기만 하면서요. 헤어질 때면 아빠는 내 손을 꼭 잡고 “미안하다.”고 했어요. 맛있는 것도 사주고, 내 얘기도 들어주고, 선물도 사 주는데 왜 미안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건 아빠의 비밀 암호 같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출근 전에 내 볼에 뾰족해 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건 나를 사랑한다는 비밀 암호거든요. 어른들은 비밀을 좋아하나 봐요.

하지만 난 그 비밀이 조금 불편해요. 특히 학교에 들어간 후에는요.

한번은, 학교에서 역할놀이를 하는데 넥타이가 필요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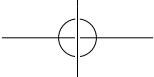
어쩌다 보니 우리 모둠에서 내가 넥타이를 가지고 와야 했어요. 우리 집에는 넥타이가 없어요. 아빠가 떠날 때 커다란 가방에 아빠 물건을 다 넣었거든요. 선생님이랑 친구들한테 우리 집에는 넥타이가 없다고 얘기할까 잠시 생각했지만, 그러면 엄마와 아빠의 이혼 사실을 말해야 하잖아요. 그건 비밀인데…….

아버지이날은 더 심했어요. 선생님은 엄마와 아빠에게 드릴 카네이션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엄마 아빠께 꼭 카네이션을 전해 드리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아빠에게 카네이션을 주려면 37일을 기다려야 했지요. 아빠를 37일 후에나 만나거든요. 37일을 기다리는 동안 카네이션은 다 구겨질 거고, 어쩌면 웠어버릴지도 몰라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카네이션을 잘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선생님께 이런 어려움을 얘기할까 생각했지만, 역시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정말이지 비밀이 있다는 건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학교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는 마을 사람들이 여러 정보를 볼 수 있도록 만든 커다란 게시판이 있어요. 게시판에서 무언가가 햇빛에 반짝거렸어요. 눈이 부셔서 잘 쳐다볼 수도 없을 정도였어요.

“뭐가 저렇게 반짝거리지?”



나는 반짝거리는 게 뭘까 궁금해 하며 게시판으로 다가갔어요. 정말 신기한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짹꿍 수첩이가 흘로그램이라고 자랑하던 그 스티커처럼 이쪽에서 보면 노란색으로, 이쪽에서 보면 빨간색으로, 또 다른 쪽에서 보면 보라색으로 보이는 아주 신기한 색깔의 종이였어요. 그 종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비밀 말하기 축제

여러분의 모든 비밀을 말할 수 있습니다. 아래 참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아래 주소로 보내 주세요. 우표는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미션에 성공한 어린이에게 초대장을 보내 드립니다.

‘비밀 말하기 축제? 모든 비밀을 말할 수 있다고?’

나는 호기심이 생겨서 그 종이를 한 번 더 쳐다보았어요. ‘비밀’이라는 글자가 나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비밀이 있어서 불편한 점들이 마구 떠올랐어요. 나는 비밀 말하기 축제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의 비밀을 적어서 종이에 적힌 주소를 봉투에 썼어요. 그리고 우체통을 찾아서 봉투를 넣었어요. 우표를 붙이지 않아도 된다니 정말 신기했어요. 미션에 성공한 어린이에게만 초대장을 준다고 했는데, 그 미션은 뭘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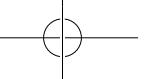
다음 날이 되었어요. 아파트 1층에 있는 우리 집 편지함을 열어봤지만 다 엄마한테 온 편지만 있었어요. 엄마가 돈 내라는 종이가 든 편지라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지들이죠. 다음 날, 그 다음 날, 매일매일 편지함을 열어봤어요. 그리고 21일째 되던 날, 드디어 그때 그 포스터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종이봉투에 유민재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어요. 콩닥콩닥 심장이 뛰었어요. 그리고 편지 봉투를 열었어요.

초대장

미션에 통과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유민재 어린이를 비밀 말하기 축제에 초대합니다.
내일 3시 별빛공원 벤치에 앉아서 기다려 주세요.

나는 미션이 뭔지도, 내가 어떻게 그 미션을 성공했는지도 모르지만 초대장을 받아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별빛공원은 우리 집 바로 앞에 있는 공원이에요. 엄마랑 할머니한테는 별빛공원에서 놀고 온다고 하면 걱정하지 않으실 거예요.

드디어 그날이에요. 나는 2시 50분부터 별빛공원 벤치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혹시 늦기라도 하면 축제에 안 데려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찌감치 기다렸어요. 2시 58분, 2시 59분……,



2시 59분 59초, 3시!

별빛공원이 갑자기 밝아졌어요. 처음 봤던 포스터처럼, 초대장을 받았던 그 편지 봉투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갑자기 사람이 아주 많이 있어요. 내 또래로 보이는 아이들도 있었고, 나보다 서너 살쯤 나이가 많아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모두 어린이였어요. 어른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별빛공원 안쪽 무대 아래 쪽에는 언제 나타났는지 멋진 음악을 연주하는 밴드도 있어요. 음악 소리가 아주 커서 좀 큰소리로 이야기를 해야 했어요. 무대 반대쪽에는 테이블이 열 개쯤 있었는데, 그 위에는 먹을 게 가득 했어요. 작은 접시에 한입 크기로 먹기 좋게 여러 가지 음식이

쌓여 있었어요. 정말 영화에 나오는 파티 같았어요. 매일매일 지나가던 별빛공원인데, 오늘은 완전히 다른 곳 같았어요.

내가 여기저기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 긴 생머리 여자아이가 말을 걸었어요.

“안녕, 너 여기 처음이구나?”

“응.”

“제법인데. 미션 통과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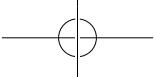
“사실 난 미션이 뭔지도 몰라. 내가 어떻게 통과했는지도 몰라.”

“아, 하긴……. 나도 처음 여기 왔을 때 그랬었어. 그 미션은 말이야, 초대장이 올 때까지 매일 우체통을 확인해야 하는 거였어. 많은 아이들이 3~4일 정도 기다리다가 포기하거든. 일종의 인내심 테스트 같은 거지.”

긴 생머리 아이는 계속 말을 이어서 했어요.

“그리고 비밀 말하기 축제 포스터 말이야. 어린이에게만 보여. 착한 어린이에게만……. 그래서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르지만, 여기에 초대되었다는 것만 봐도 네가 착한 어린이라는 걸 알 수 있지.”

긴 생머리 아이 덕분에 비밀 말하기 축제에 대해 좀 더 알게 되었어요. 긴 생머리 아이는 어떤 비밀이 있기에 비밀 말하기 축제에 여러 번 왔을까 궁금해 하며 물었어요.



“근데 넌 비밀이 뭐야?”

긴 생머리 아이는 잠시 얼굴을 찌푸렸다가 펴고는 얘기했어요.

“네가 여기 처음이니까 말해 주는 건데, 여기서는 다른 사람의 비밀을 묻기 전에 너의 비밀을 먼저 말해야 해. 이렇게 대뜸 비밀이 뭐냐고 묻는 건 좀…….”

“아, 그렇구나. 미안해. 여기가 처음이라 그런 규칙이 있는 줄 몰랐어. 내 비밀은 엄마랑 아빠랑 이혼했다는 거야. 넌 비밀이 뭐야?”

긴 생머리 아이는 나의 비밀에 별 관심도 보이지 않았어요.

“내 비밀은 언니가 외출했을 때 언니 머리핀을 꽂고 친구를 만나러 나갔었다는 거야. 언니가 들어오기 전에 제자리에 두어서 언니한테 걸리지 않았지.”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겨를도 없이 그 아이는 말을 이어갔어요.

“나도 알아. 내 비밀이 별 게 아니라는 거. 나도 당분간만 비밀로 할 거라고. 곧 언니한테 털어놓을 거야. 언니는 꽉 하고 소리를 지르겠지. 그건 그렇고 우리 이제 뭣 좀 먹을까?”

긴 생머리 아이도 ‘당분간’만 비밀로 한다고 했어요. 도대체 ‘당분간’은 얼마만큼의 시간일까요?

우리는 함께 음식 테이블로 갔어요. 거기에 야구 모자를 쓴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이 파티에서 제일 어린아이로 보였

어요. 그 아이는 키가 작아서 발뒤꿈치를 들고서야 겨우 테이블에 손이 닿았어요.

“안녕.”

나는 야구 모자 아이에게 인사를 했어요.

“안녕.”

그 아이도 나에게 인사를 했어요. 나는 야구 모자 아이의 비밀이 궁금했지만, 먼저 내 비밀을 얘기했어요. 방금 전 긴 생머리 아이의 조언대로요.

“내 비밀은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셨다는 거야.”

“그렇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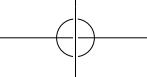
야구 모자 아이가 나의 비밀에 대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말해서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이런 내 마음을 알아챈 듯 야구 모자 아이는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 어린이집에 주영이랑 선호랑 유민이랑 소라네 엄마 아빠도 이혼을 했어. 그 친구들에게는 그건 비밀이 아니던데…….”

나도 아빠가 당분간 나에게 비밀로 하자고 말하지 않았다면 비밀로 안 했을 텐데……. 좀 억울한 생각이 들었어요.

“너는 비밀이 뭐니?”

“내 비밀은 말이야. 엄마가 모으고 있는 피자집 쿠폰을 잃어버렸다는 거야. 엄마한테 아직 말을 못 했어. 엄마가 아시면 엄



청 엄청 엄청 엄청 화내실지도 몰라.”

나는 하마터면 마시고 있던 음료수를 뺨을 뺐했어요. 피자집 쿠폰을 잃어버렸다고 엄청 엄청 엄청 화내시는 부모님은 없을 테니까요. 나는 웃음을 꾹 참고 얘기했어요.

“그건 비밀로 안 해도 돼. 엄마한테 얘기해. 피자를 사 먹으면 그 쿠폰은 또 받을 수 있어.”

야구 모자 아이가 의심 가는 얼굴로 나를 한 번 더 쳐다봐서 나는 확신을 주기 위해 한 번 더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공원 한쪽 나무 기둥에 등을 기댄 채 뭐라고 중얼중얼 거리는 아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까만 뿔테안경을 쓰고 한 손에는 엄청 두꺼운 책을 끼고 있는 내 또래의 아이였어요. 한눈에 봐도 엄청 똑똑해 보였죠. 머릿속으로 뭔가를 생각하는 듯한 표정을 짓다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고개를 젓기도 했어요.

“안녕.”

뿔테안경 아이는 생각에 잠겨 있어서 내 목소리를 못 들은 거 같아요. 내가 좀 더 큰 소리로 “안녕!”이라고 말하자 나를 쳐다봤어요.

“안녕, 내 비밀은 엄마 아빠가 이혼하셨다는 거야. 너의 비밀은 뭐니?”

역시 긴 생머리 아이의 조언대로 나의 비밀을 먼저 말하고

그 친구의 비밀을 물었어요.

뿔테안경 아이는 마치 외웠던 대사를 내뱉듯이 말했어요. 숨도 쉬지 않고요.

“현대 사회에서 이혼은 비밀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우리나라 는 25만 7,622쌍이 결혼을 했고, 10만 8,684쌍이 이혼을 했어. 일 년에 열 쌍이 결혼을 하고 네 쌍이 이혼을 한 셈이야. 이혼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지표로 조이혼율이란 게 있어. 인구 천 명당 새로 이혼한 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거지. 작년 우리나라 조이혼율이 얼마인지 알아? 2.1건이야. 1970년에 0.4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다섯 배 이상 증가했음을 알 수 있지. 이혼율 증가는 국제적인 현상으로 OECD 대부분 국가에서 조이혼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헉, 이건 무슨 소리지? 분명 한국말인데,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

난 통계청이 뭔지도, 지표나 조이혼율이나 OECD, 그게 뭔지도 모르지만, 그냥 이혼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까만 뿔테안경 아이는 정말 똑똑한가 봐요.

“아, 내 비밀에 대해 물었었지? 얼마 전 아빠는 나의 암산 실력을 뽐내려고 손님들이 오셨을 때 76937 곱하기 8723을 암산하라고 하셨지. 나는 671121461이라고 대답했고 우리 집에



온 손님들은 ‘와!’하며 모두 박수를 했지. 그런데 사실 내 계산이 틀렸다는 걸 잠시 후에 깨달았지. 십의 자리 숫자 하나가 틀렸던 거야. 하지만 나는 그냥 내 틀린 답이 맞는 것처럼 서 있었어. 그때 실수했다고 말했어야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지. 손님들이 다 가 버린 후에 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서 나는 내가 틀린 답을 말했다는 것을 비밀로 하기로 했어. 이런 비밀을 갖고 있다는 건 너무 괴로운 일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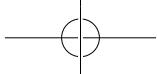
뿔테안경 아이는 정말 너무 괴로운 것처럼 보였어요. 나는 76937 곱하기 8723이 아니라 7 곱하기 8이 뭔지도 잘 몰라요. 그런 건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고 넘어가도 될 텐데…….

나는 이렇게 비밀을 말하고, 비밀을 들으면서 비밀 말하기 축제를 즐겼어요. 비밀 말하기 축제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비밀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비밀은 스스로에게만 비밀일 뿐, 다른 사람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어디에선가 안내 방송이 들렸어요.

“비밀 말하기 축제에 오신 여러분, 이제 축제가 끝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잠시 후 또 다시 별빛공원이 밝아졌어요. 처음 봤던 그 포스터처럼, 초대장이 들어 있던 그 편지 봉투처럼, 3시에 축제가 시



작되었을 때처럼 말이에요.

축제에 있었던 그 많던 아이들은 이제 보이지 않아요. 뿔테안
경 아이도, 야구 모자 아이도, 긴 생머리 아이도, 밴드도, 음식도
사라졌어요. 신데렐라가 밤 12시가 되어 원래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았어요. 모든 게 축제에 가기 전 그대로예요. 별빛공원 벤
치도, 나무도, 심지어 시간도요. 지금은 3시예요. 정말 신기해요.

하지만 달라진 게 있어요. 내 비밀이 비밀로 느껴지지 않아
요. 이제 ‘당분간’이라는 시간이 다 지난 것 같아요.

비밀 말하기 축제에 다녀온 다음 날, 미술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 가족 그리기를 했어요. 나는 엄마랑 할머니를 그리고 그
사이에 나를 그렸어요. 그런 다음 친구들 앞에 서서 그림을 들
고 가족 소개를 했어요.

“저는 엄마랑 할머니랑 살고 있어요. 아빠는 엄마랑 이혼을
하셔서 나랑 함께 살지 않아요. 엄마는 회사에 다니느라 힘들지
만 시간을 내어 저에게 책도 읽어 주시고, 함께 놀아 주십니다.
할머니는 회사에 간 엄마를 대신해서 밥도 챙겨 주시고, 숙제도
도와주십니다. 저는 우리 가족이 참 좋습니다.”

이제 나는 비밀이 없어요. 비밀이 없으니 아주 편해요. 하지
만 이제 비밀 말하기 축제에는 갈 수가 없겠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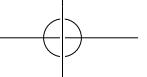
여러분도 비밀이 있나요? 그럼 비밀 말하기 축제에 가 보세요
아, 착한 어린이에게만 비밀 말하기 축제 포스터가 보인답니다.

함께 생각해 볼까요?

1. 엄마 아빠는 왜 민재에게 당분간 자신들의 이혼을 비
밀로 하자고 했을까요?

2. 누군가에게 나만의 비밀을 털어 놓은 적 있나요? 아
니면 누군가로부터 자신의 비밀을 전해들은 적 있나
요? 비밀을 말하거나 들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까요?

3. 엄마 아빠가 이혼한 것이 자녀들의 잘못은 아니에요.
부모가 이혼한 친구들이 있을 때 어떻게 대해 줘야 할
까요?



엄마가 가출했다



“영준아~ 희준아~ 얼른 옷 갈아입고 와서 밥 먹어라.”

매일 아침 엄마의 잔소리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밥을 먹고 엄마 차를 타고 학교에 갑니다. 차 안에서도 잔소리는 끊이질 않습니다. 안 그래도 엄마의 빠른 말과 공부 열심히 해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 등 잔소리 폭격에 우리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답니다. 엄마가 퇴근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갔다 왔으면 깨끗이 씻어라, 태블릿 그만 보고 숙제해라, 어지럽혀 놓았으면 잘 정리해라 등 우리가 한시도 제멋대로 하는 걸 그냥 두지 않습니다.

아 참, 우리가 누구냐고요? 저는 영준이, 동생은 희준이 우리

는 쌍둥이 형제입니다. 우리 동네에서 가장 쾌활한 쌍둥이지요. 늦게까지 일하는 부모님이 돌아오시기 전까진 온 집안과 동네를 신나게 뛰어다닙니다. 동네 어른들도 우리를 보고 자주 웃어주시곤 합니다.

하지만 엄마만은 예외입니다. 너무 이상해서 희준이한테 물어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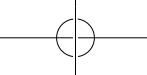
“희준아, 엄마가 도대체 왜 우리한테만 그러실까? 옆집 성희한테는 항상 좋은 말만 해주시잖아.”

희준이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나지막이 내뱉었습니다.

“엄마는 우리가 뭉시 싫은가 봐. 맨날 우리가 피곤하게 한다고 하시는 거 보면 분명해.”

우리가 그렇게 맘에 안 들면 차라리 성희랑 살지 왜 우리랑 살아서 이렇게 잔소리를 하시는 걸까요? 도무지 엄마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매일 잔소리가 이어지던 어느 날 엄마와 우리는 큰소리로 싸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사소했습니다. 성희랑 놀이터에서 같이 놀고 집에 들어가려는데, 마침 퇴근하던 엄마를 만났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엄마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성희를 칭찬했고, 그 모습에 뿔이 난 우리 형제는 성희의 양갈래머리를 하나씩 잡고 당겨 벼렸습니다. 놀란 성희는 주저앉아 울었고, 성희를 달래 준 엄마는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우리에게 화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희들 도대체 왜 그러니. 엄마가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라고 했어 안 했어? 잘 놀더니 갑자기 성희를 왜 괴롭히니?”

우리는 억울했습니다. 엄마는 정말 이유를 모르는 건가. 나는 참지 못하고 큰소리로 말했습니다.

“전부 다 엄마 때문이잖아. 엄마가 맨날 성희만 예뻐하고 나랑 희준이한테는 잔소리만 했잖아. 성희도 우리랑 같이 뛰

어노느라 옷에 흙 묻었고 지저분했는데, 왜 우리한테만 뛰라고 그래.”

희준이도 이번에는 잠자코 있지 않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그렇게 싫은 거야? 그렇게 엄마를 힘들게 해? 근데 왜 우리랑 사는 거야?”

엄마는 어안이 병벙한 듯 우리를 쳐다보셨습니다. 잠시 후 말 없이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나랑 희준이도 일단 씻고 옷을 갈아입은 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빠가 퇴근할 때까지 집 안은 적막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음날 휴일 아침 평소와는 다른 목소리가 우리를 깨웠습니다.

“영준, 희준, 어서 일어나라.”

아빠가 웬일이지. 빼죽빼죽 일어나 나가 보니 엄마는 안 보이고 아빠가 부엌에 계셨습니다. 낯선 광경에 멍해진 우리에게 아빠는 라면을 끓여 주셨습니다.

“아빠~ 엄마는?”

아빠는 오늘도 출근해야 하니까 얼른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엄마는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가셨단다. 아마 내일이나 돌아오실 테니 오늘은 둘이 사이좋게 있으렴.”

그리고 아빠는 부리나케 집을 나가셨습니다.

“오늘 엄마가 안 들어온다. 야호, 자유다 자유!”



우리는 신나서 오늘 하루 각자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자고 정했습니다. 희준이는 아직 졸린다며 뭐라고 할 사람도 없으니 하루 종일 자겠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서 텅굴뒹굴 태블릿을 했습니다. 그동안 엄마의 잔소리 때문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참에 모두 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빠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 폭탄선언을 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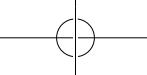
“엄마가 가출했다.”

처음엔 무슨 소리인가 싶어 아빠를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엄마가 가출했다. 당분간 엄마는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 이제부터 집안일이며 여러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

그러면서 아빠는 우리에게 할 일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청소며, 빨래, 식사 준비까지 모두 나누었습니다. 학교 갈 준비는 각자 알아서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기대 반 걱정 반으로 그날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엄마가 없는 첫날. 우리는 불편했지만 우려와는 달리 괜찮았습니다. 맛은 덜했지만 아빠가 해준 음식도 먹을 만했습니다. 학교에 다녀와서도 잔소리할 사람이 없으니 그냥 제멋대로 해도 되었으니 말이죠. 아빠가 퇴근했지만 각자 맑은 것만 잘하라고 하실 뿐 우리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일이 지나자 점점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학교를 가려고 보니 입고 갈 만한 옷이 없었습니다.

“아빠~ 학교에 입고 갈 옷이 없어요.”

아빠는 우리가 빨래를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팬찮은 줄 알았습니다며 어제 입은 옷을 다시 입고 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건 싫다며 몹시 더웠지만 겨울옷을 간신히 찾아 입었습니다. 희준이는 더운 건 싫다면서 어제 옷을 그대로 입었고요. 그렇게 학교를 가자 아이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보았습니다.

“희준아, 너 어제 입은 거 또 입고 온 거야? 냄새나지 않니.”

“영준아, 넌 한여름에 웬 겨울옷이야? 땀이 아주 주룩주룩 흐르는구나.”

우리 쌍둥이 형제는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해졌지만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놀리는 정도에서 그쳤으나 엄마가 가출했다는 것이 학교에 소문나는 순간 우리는 창피해서 학교에 다닐 수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자마자 우리는 밀린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빨래는 세탁기에 모두 집어넣었습니다. 어지럽혀 있던 집 안도 말끔히 정리했습니다. 일을 모두 마치고 저녁밥을 먹으려고 보니 먹을 만한 것이 없어서 남은 식빵을 먹어야 했습니다.

“희준아, 힘들다. 그치?”

희준이가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표했습니다. 잠깐

엄마가 그리워지길 했지만 다시 떠오른 엄마의 잔소리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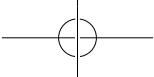
5일째 되던 날 결국 우리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매일 똑같은 아빠의 음식에 질려 버렸습니다. 나름 한다고 했지만 집 안은 여전히 지저분했습니다. 시간에 촉박하게 학교를 가다 보니 옷도 영망으로 입고 갔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짹짜이로 신은 양말을 보면 새로운 쌍둥이 패션이나면서 놀리곤 했습니다.

시무룩하게 돌아온 우리 둘. 엄마가 너무 그리웠습니다. 며칠 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엄마는 매일 퇴근하고 나서도 집안일을 하시다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 싫던 잔소리마저 이제는 그리울 지경입니다.

“희준아, 엄마 언제 돌아오실까? 설마 이대로 영영 안 오시는 건 아니겠지?”

“설마……. 다시 돌아오시면 말 잘 듣고 집안일도 잘 도와줄 자신 있는데.”

엄마가 돌아오지 않을까 봐 우리는 아빠가 퇴근할 때까지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아빠가 돌아오자 우리는 엄마를 찾았냐고, 언제 돌아오시냐고, 보고 싶다고 아빠에게 매달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슬며시 미소 지은 아빠는 엄마를 찾았으니 내일 다같이 모시러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빨리 내일이 오길 바라며 어느 때보다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준비를 마치고 아빠 차에 탔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냐는 우리의 물음에 아빠는 가 보면 안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도착한 곳은 대학병원. 우리의 몸은 불안함에 마구 떨려 왔습니다. 엄마가 우리 때문에 아프신 건가. 설마 큰 병으로 쓰러지신 건 아니겠지. 병실 문 앞에 도착하자 눈물이 마구 흘렀습니다. 다급히 문을 열고 엄마를 찾았습니다. 유일하게 있던 침대가 엄마의 침대라고 생각한 우리는 엄마를 마구 부르며 달려갔습니다.

“엄마! 일어나! 엄마! 미안해! 다신 안 그렇게. 제발 우리만 두고 가지 마.”

나와 희준이는 눈물, 콧물 쏟으며 침대의 하얀 이불을 붙잡고 외쳤습니다. 순간 이불이 젖혀지고 낯설지만 반가운 얼굴이 우리를 마주했습니다. 바로 외할머니였습니다.

“이 서방 왔는가? 손주들이 왜 이러누?”

할머니는 아빠에게 이게 뭔 일이냐며 물었습니다. 마침 화장실에 있다가 돌아온 엄마도 이 광경을 보더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아빠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빠는 멋쩍게 웃으시며 요즘 애들이 말도 잘 안 듣고 엄마에게 예의 없이 행동하기에 엄마가 가출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은 할머니는 크게 웃으셨고, 엄마는 장난이 지나쳤다며 아빠에게 편지를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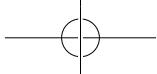
“엄마, 그동안 죄송했어요. 특히 지난주 그 말은 우리가 너무 심했어요.”

우리는 쭈뼛쭈뼛 엄마에게 다가가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쉽게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다.

“글쎄, 앞으로 너희들 하는 거 보고 결정해야겠다.”

엄마의 말에 우리는 앞으로 열심히 돋겠다며 꼭 같이 돌아가자고 엄마에게 매달렸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할머니께서 웃으면서 저희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영준아, 희준아, 너희 이름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아니? 쌍둥



이라서 엄마가 너희 낳을 때 무척 힘들어 했거든. 그래도 포기 하지 않았단다. 그러곤 너희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엄마의 이름을 한 글자씩 따와서 붙여 준 거란다. 그만큼 엄마는 너희를 사랑하니깐 엄마 힘들게 하면 안 된다. 알았지?”

처음 듣는 얘기에 놀란 나와 희준이는 엄마를 바라보며 그려 겠노라고 큰소리로 다짐했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의 짐을 챙기고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퇴원하셨지만 아직 지켜봐야 되기에 우리 집으로 함께 가는 것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엄마의 표정이 살짝 일그러졌습니다. 치운다고 치우긴 했는데, 엄마 마음에는 들지 않았나 봅니다. 잔소리가 시작되려고 하자 할머니가 엄마를 밀치며 어서 들어가자고 재촉했습니다. 소파에 편히 앉은 할머니는 주위를 둘러보셨습니다. 그러곤 엄마를 향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나름 깔끔히 정리했네. 영희야, 너 어릴 적에는 이 거보다 심했었다.”

“엄마, 애들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요. 그만하고 얼른 옷 갈아입고 편히 쉬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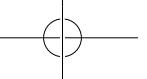
당황한 엄마는 급하게 할머니를 방으로 모셔갔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 본 나와 희준이는 살며시 미소 지으며 방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생각해 볼까요?

1. 영준이와 희준이는 왜 엄마가 자신들을 몹시 싫어한다고 생각했을까요?

2. 아빠가 영준이와 희준이에게 엄마가 가출했다고 거짓말을 한 이유는 뭘까요?

3. 엄마 아빠를 도와 집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왜 집안일을 가족끼리 조금씩 나눠서 해야 하는지 의견을 나누어 봅시다.



413일의 별 ☆

병원에서 걸어 나오던 사라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번에도 임신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별씨 네 번째인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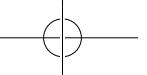
사라 씨는 결혼한 지 8년이 되었습니다. 사라 씨와 비슷한 시기에 결혼한 다른 친구들은 벌써 아기가 하나나 둘이 있었어요. 며칠 전에는 한 친구가셋째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그렇지만 사라 씨의 가족은 여전히 사라 씨와 정국 씨 두 사람 뿐이었습니다. 사라 씨가 밤늦게 돌아온 집에 아직 정국 씨는 없었어요. 대신 휴대전화로 야근 때문에 많이 늦을 것 같다는 정국 씨의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가 되는 건 너무 특별한 일인 것 같아…… 이번에도 내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어.”

정국 씨의 문자에 사라 씨는 이렇게 답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날 밤은 바람이 많이 불고 눈도 아주 많이 내렸습니다. 저녁부터 하늘이 땅으로 점점 내려앉더니 밤중에는 고양이 손바닥 같은 눈이 평평 쏟아졌습니다. 이대로 눈이 계속 내리다가는 세상이 온통 눈 속에 묻혀 버릴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일찍 집으로 돌아갔고 마지막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관 앞에 선 버스에서 작고 어린 여자가 내렸습니다. 그녀는 여관에서 제일 구석진 방을 얻어서 들어갔습니다.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던 여자는 외투를 벗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크게 부푼 배를 움켜잡고 신음 소리를 냈습니다. 밖에는 눈이 점점 더 많이 내리고 있었고 바람 소리도 점점 크게 들렸습니다. 아무도 밤새 그 작고 어린 여자가 내는 신음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면 데서 천둥소리도 들렸습니다.

새벽이 왔을 때 여자는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막 태어난 아기를 수건으로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아직 아침이 오기 전에 여자는 자신이 머물렀던 방 문 앞에 아기를 놓고 여관을 떠났습니다. 아기는 여자가 입고 왔던 두꺼운 외투에 꼭꼭 싸인 채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눈이 그쳤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관에도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갔습니다. 잠에서 깬 여관 주인은 방들을 둘러보다가 가장 구석진 방 문 앞에서 무엇인가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고양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꼼지락거리며 움직이는 것이 웬지 사람 손 같았습니다. 여관 주인은 가까이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맙소사. 아기잖아!”

아기는 눈을 꼭 감은 채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놀란 여관 주인은 경찰을 불렀습니다. 여관으로 온 경찰관은 아기를 건네받았습니다. 그때 아기가 처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작지만 까맣고 빛나는 눈이었습니다.

“고놈, 눈이 별을 닮았네.”

경찰관은 아기를 데리고 여관을 나왔습니다. 경찰관의 품에서 아기는 작은 입으로 하품을 했습니다.

사라 씨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교회 언니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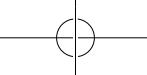
“오랜만에 우리 집에 놀러 올래?”

언니는 얼마 전에 새로운 아기가 생겼습니다. 몇 해 전부터 집 근처에 있는 아동복지센터에서 자원 봉사를 했던 언니는 그 곳에서 아기들을 만났습니다.

“눈이랑 코랑 광대뼈가 나랑 진짜 닮았어. 이름을 지수라고 부르더라. 우리 첫째가 지환이고 둘째가 지성이잖아. 아들 둘 키울 때는 나도 뭐가 뭔지 잘 몰랐지만 지금이라면 더 많이 사랑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언니는 결국 올해 지수를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언니의 세 번째 아이이자 사랑스러운 딸이 된 것입니다.

“보통 아기들이 입양되기까지 413일 정도가 걸린대. 그 기간 동안 아기들은 혼자서 매일매일 기다리는 거야. 좋은 엄마 아빠



가 나타나 주길.”

사라 씨가 초대 받아서 간 집에서는 아기 냄새가 났습니다. 또 언니와 형부가 자는 침실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한 커다란 아기 침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침대 안에는 아기가 고롱고롱 소리를 내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오똑한 코와 양 다문 입을 한 아기는 잠결에 가끔씩 미소를 지었습니다.

“꿈꾸나 봐.”

사라 씨가 말했습니다.

“배냇 웃음이야.”

언니가 대답했습니다. 아기를 바라보는 언니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환이가 돌아왔습니다.

“어? 사라 이모 오셨네요?”

“응, 지환아 오랜만이네.”

“예, 이모 잠깐만요. 손 씻고 올게요.”

지환이는 사라 씨에게 인사하고 바로 손을 씻기 위해 화장실로 갔습니다.

“원래 지환이는 집에 들어오면 말도 잘 안 하고 바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곤 했거든. 식사할 때나 얼굴 잠깐 봤을까? 그런데 지수가 오고 난 다음부터는 집에 오면 손 먼저 씻어. 지수 안아주려면 손이 깨끗해야 한다고.”

언니는 이 말을 하면서 웃었습니다. 그때 지수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는지 눈을 떴습니다.

“아, 우리 지수 깼다.”

지수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밖에서 지환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지수 깼어요?”

“응.”

“우유 준비해야죠?”

“응.”

“제가 할게요.”

“응, 고마워 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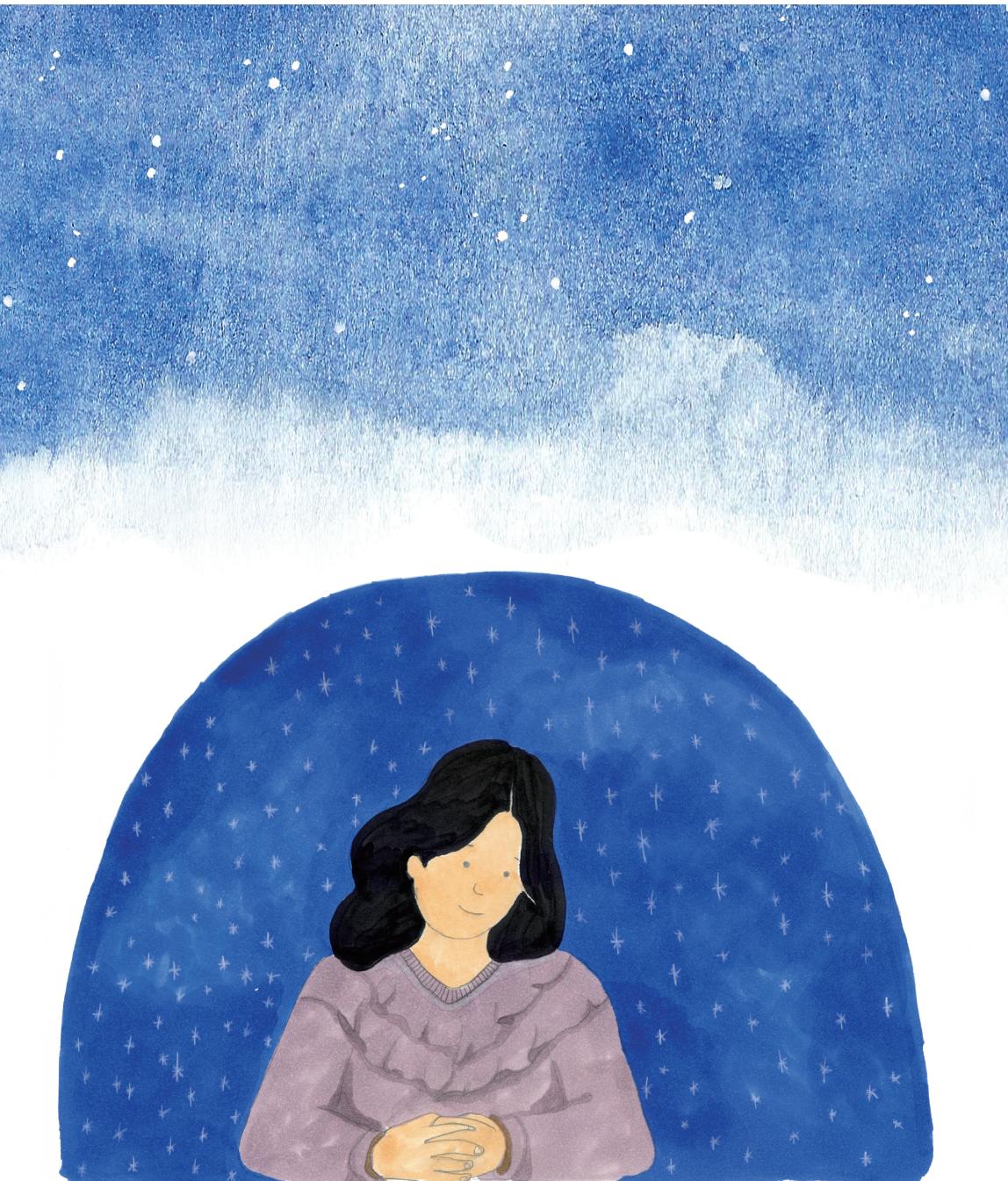
언니는 누워 있던 지수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지수야, 이모 오셨네. 오늘 처음 만났지? 이모에게 가 볼까?”

언니는 조심스럽게 지수를 사라 씨에게 건넸습니다. 사라 씨에게 온 지수에게서는 달달한 아기 냄새가 났습니다. 지수는 사라 씨에게 안겨서 볼을 마구 비볐습니다. 지수의 볼은 부드럽고 따뜻했답니다.

“아, 지수야 반가워.”

사라 씨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지수를 안는 기분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지수가 이모 좋아하는구나.”

그 말도 사라 씨는 정말 좋았습니다. 정말 엄마가 된 기분이 들었거든요.

정국 씨는 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사라 씨를 마중하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 아파트 공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사라 씨의 모습은 멀리서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당신, 오늘 뭐 기분 좋은 일 있었어?”

정국 씨가 물었습니다.

“응. 내일 언니랑 같이 아동복지센터에 가기로 했어.”

“아동복지센터?”

“응. 언니가 오래전부터 가던 곳인데, 나도 거기 가서 자원봉사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당신 요즘 몸도 안 좋다고 했잖아.”

“응, 이젠 괜찮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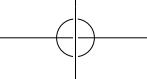
사라 씨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국 씨는 궁금했습니다.

“아, 뭐야? 무슨 일인데?”

사라 씨는 대답 대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 내리고 나서 하늘이 엄청 깨끗해졌네. 오늘밤은 별도 많고.”

사라 씨의 말에 정국 씨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사라 씨의



말처럼 밤하늘에는 정말 많은 별들이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정국 씨, 밤하늘에 별들이 왜 저렇게 많은 줄 알아?”

“응?”

“이루어지지 않은 소원들은 모두 별이 된대. 그러니까 저 별들은 모두 누군가의 소원이고 기도고 기다림인 것이지.”

“…….”

“근데, 정국 씨 저 별들이 왜 저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줄 알아?”

“글쎄?”

“이루어지지 않은 소원이, 기도가, 기다림이 그걸 이루어 줄 누군가에게 더 잘 보이라고, 더 빨리 이루어 달라고 매일매일 반짝반짝 빛을 내는 거래.”

“진짜?”

사라 씨는 대답 대신 정국 씨의 팔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구청 직원은 아동복지센터의 소장님께 아기를 넘겨주면서 말했습니다.

“아기 눈이 별을 닮았어요.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이 아기를 별이라고 불렀다내요. 아기가 어디서나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별이가 센터에 처음으로 도착한 날, 사라 씨도 처음으로 센터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사라 씨는 집을 떠나기 전에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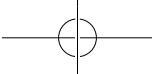


도했어요.

“저에게도 엄마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언젠가 나의 아기를 만나게 된다면 꼭 알아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라 씨의 기도는 잠시 땅에서 맴돌다가 이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아주아주 높은 하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에서도 제일 높은 곳에서 빛나는 별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사라 씨는 정국 씨에게 낮에 센터에



서 만난 어떤 아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나보다 먼저 와 있었어. 그 아기도 나처럼 오늘 처음 센터에 왔다는 거야. 나랑 아기랑 눈이 마주쳤는데, 그 눈이, 진짜 별처럼 반짝거렸다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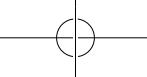
사라 씨는 별을 닮은 눈동자를 가진 아기 이야기를 하느라 밤이 깊어 가는 줄도 몰랐답니다.

함께 생각해 볼까요?

1. 사라 씨가 간절히 바라는 소원은 무엇일까요?

2. 눈이 많이 내리던 날 밤, 여관 제일 구석진 방에서 아기를 낳은 작고 어린 여자는 두꺼운 외투에 꼼꼼 싸인 것난아기를 왜 방문 앞에 두고 사라진 걸까요?

3. 아동복지센터에 자원 봉사하러 갔다 온 사라 씨는 왜 갑자기 들뜬 기분이 되었나요?



쌍둥이자리

빨간색 숫자 위에서 별이 빛나고 있어요. 지우의 손가락이 달력에 그려진 별을 따라갔어요. 매월 둘째 주 일요일. 오늘은 지우에게 특별한 날이거든요.

“지우야, 준비 다 했지?”

엄마의 물음에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소 같으면 5분 만 더 자겠다고 늑장을 부렸겠지만 오늘은 달랐지요. 일찍 세수하고 가장 아끼는 옷을 꺼내 입었어요. 그리고 엄마와 함께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백화점 앞이 인파로 블며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지우는 단번에 그들을 알아볼 수 있어요. 두 사람이 지우를 향해 반갑게 손

을 흔드네요.

“아빠! 선우야!”

한 달 만에 만나는 아빠, 그리고 쌍둥이 남동생 선우였어요. 지우네 가족은 일 년 전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떨어져 살게 됐어요. 지우는 엄마와, 선우는 아빠와…… 그리고 한 달에 한번씩 만나는데, 오늘은 지우가 아빠랑 선우랑 시간을 보내는 날이에요.

“이따 데리러 올게. 지우 선우, 아빠랑 재밌게 놀아.”

엄마는 이 말을 남기고 차를 타고 갔어요. 지우는 아쉬워하는 선우의 표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선우는 엄마를 보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아빠가 양쪽으로 지우와 선우의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우리 맛있는 것부터 먹을까? 지우 뭐 먹고 싶어?”

“음…… 비빔밥이요.”

“야, 그러지 말고 우리 짜장면이나 피자 먹자!”

지우의 말에 투덜대는 선우예요. 예전에도 그랬어요. 지우와 아빠는 한식을 좋아하고, 선우와 엄마는 밀가루 음식을 좋아해서 외식 메뉴를 놓고 아옹다옹했지요. 오늘은 이 대 일로 비빔밥의 승리예요. 맛있게 점심을 먹고 영화관에 갔어요. 쌍둥이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기로 했거든요.



영화 속 영웅이 악당을 물리치는 순간, 지우는 좌석 손잡이를 꽉 잡았어요. 훌깃 옆을 보니 선우도 침을 꿀꺽 삼키지 뭐예요. 이럴 땐 참 닮은 쌍둥이지요.

아이스크림을 먹고 나니 벌써 헤어질 시간이네요. 공부할 때 시간은 거북이처럼 느린데, 이럴 땐 왜 토끼처럼 빠른 걸까요. 엄마가 지우를 데리러 왔어요. 지우와 선우는 각자 차에 올라탔어요.

횡단보도 앞에 차가 멈춘 사이, 지우가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옆 차선에 미끄러지듯 아빠 차가 멈춰 섰어요. 뒷좌석에 앉아 있는 선우가 보여요. 둘의 눈이 마주쳤어요.

‘잘 가. 다음 달에 만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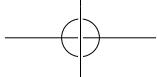
‘응. 너도 잘 가.’

지우와 선우는 마음속으로 인사를 나누었어요. 신호가 바뀌자 차가 다시 출발했어요. 지우를 태운 차는 왼쪽으로 선우를 태운 차는 오른쪽으로 달려갔어요.

월요일 수업 시간이에요. 담임 선생님이 종이를 나눠 주며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우리 가족 소개를 해볼 거예요. 여기에 가족 얼굴을 그리고, 이름과 별명, 특징 등을 적어 보세요.”

아이들이 색연필과 크레파스로 가족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



어요. 지우도 정성껏 그림을 그리고 글자를 적었어요. 한 사람씩 앞으로 나가 발표를 하고 드디어 마지막 지우 차례가 되었지요. 지우가 반 친구들을 향해 섰어요.

“우리 가족은 네 명입니다. 먼저 엄마는 책을 즐겨 읽고 동그란 눈이 예쁘십니다. 아빠는 저처럼 밥을 좋아하셔서 별명이 밥대장입니다. 아빠는 키가 크고 목소리가 따뜻하십니다. 선우는 저와 쌍둥이지만 다르게 생겼습니다. 3분 늦게 태어나서 동생이 되었다고 억울해합니다. 선우가 좋아하는 것은 게임이고 잘 하는 것은 태권도입니다. 선우의 별명은…….”

그때 맨 앞자리에 앉은 예리가 짹에게 이렇게 수군거리지 뭐예요.

“거짓말이야. 재 엄마랑 둘이 산댔어.”

예리는 지우와 같은 아파트에 살아요. 지우는 엘리베이터에서 예리네 가족과 몇 번 마주쳤었지요.

“거짓말 아냐!”

지우가 저도 모르게 발끈했어요. 교실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영문을 모르는 친구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요. 지우의 얼굴이 얼음처럼 굳어 버렸어요. 제자리로 돌아와서도 멀림이 멈추지 않았어요. 지우는 가족 소개 그림을 접어서 책상 서랍에 넣었어요.

쉬는 시간에 선생님이 지우를 따로 불러 물었어요.

“지우야, 아까 왜 그랬니?”

발표할 때 예리와 있었던 일을 설명했더니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리가 잘 몰라서 그런 거지, 네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야.”

“아녜요. 아빠랑 선우는 같이 안 사니까…… 예리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선생님이 고개 숙인 지우를 안쓰럽게 바라봤어요.

그날 저녁, 지우와 엄마가 식탁에 마주앉았어요.

“이번 주 금요일 별 관측 행사지? 엄마가 퇴근하고 바로 올게.”

“됐어요. 안 갈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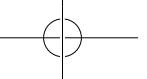
지우가 한쪽 턱을 편 채 밥알을 깨작거렸어요. 이번 주 금요일, 밤하늘에서 별비가 쏟아질 거래요. 그래서 지우네 학교 운동장에서 유성우 관측 행사가 열려요. 다른 애들은 가족들과 함께 올 테지요.

“유성우 보고 싶다고 했잖니. 엄마랑 가자.”

“싫어요. 안 간다고요. 밥 그만 먹을래요.”

“지우 너 왜 그래? 엄마도 일하고 와서 힘든데…….”

아빠와 이혼한 뒤로 엄마는 직장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늘 바쁘지요. 엄마는 지우 마음을 알기나 할까요. 자기 방으로 들어온 지우는 침대에 텔썩 누웠어요. 문득 자동차에서 봤던 선우의 얼굴이 떠올라요.



아빠는 청소도 빨래도 서툴러요. 저번에 아빠가 요리하다 냄비를 태웠다고 선우가 귀띔했지요. 지우가 엄마를 원망하는 것처럼 선우도 아빠를 원망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닌 걸까…….’

지우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어요.

며칠 후 종례 시간에 담임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별똥별 떨어지는 날이요!”

“맞아요. 쌍둥이 자리 유성우를 관측하는 날이에요. 저녁 7시부터 행사가 시작되니 가족들과 함께 와서 즐거운 시간 보내길 바라요.”

아이들은 한껏 들뜬 모습이었어요. 단 한 사람, 지우만 빼고 말이지요. 학교를 마친 지우는 학원에 들렀다가 집으로 갔어요. 이리저리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고 있는데, 핸드폰 알람이 울리지 뭐예요.

지우야, 이따 학교 시청각실로 오렴. 기다릴게.

문자를 보낸 사람은 다름 아닌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이 나를?……’

지우는 답장을 하지 못한 채 주춤했어요. 똑딱, 똑딱, 시계 바

늘이 흐르다가…… 이내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는 지우였어요.

학교 안이 별씨 사람들로 북적거려요. 시청각실에서 별과 우주에 관한 강연이 진행 중이네요. 도착한 지우가 조용히 빙자리에 앉았어요.

“유성우란 별똥별이 비처럼 쏟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쌍둥이자는 겨울철 대표 별자리로, 오늘 여러분은 쌍둥이자리 유성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유성이 천천히 많이 떨어지는데 달빛의 방해가 없어서 관측하기 매우 좋겠네요.”

단상에서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누군가 지우의 옆구리를 쿡찔렀어요. 담임 선생님이 지우 옆에서 미소 짓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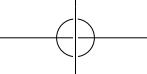
“선생님!”

“지우야, 너한테 보여 주고 싶은 게 있어.”

선생님이 지우를 데려간 곳은 운동장 한 편, 천체망원경이 설치된 곳이었어요. 선생님의 설명에 따라 지우가 망원경에 눈을 맞추었어요.

“보이니? 저게 쌍둥이자리야. 옛날에 카스토르와 폴룩스라는 쌍둥이가 있었어. 쌍둥이의 우애에 감동한 제우스 신이 저렇게 밝은 별자리로 만들어 주었단다.”

망원경 렌즈 너머로 나란히 있는 두 개의 별이 보여요. 지우가 물었어요.



“선생님, 쌍둥이별은 추운 겨울에만 뜨나요?”

“아니야. 계절과 시간에 따라 별의 위치와 모습이 다르게 보이는 거야. 어떤 때는 유난히 또렷하고 어떤 때는 흐릿하기도 하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별이 사라진 건 아냐. 쌍둥이별은 그 자리에 언제나 함께 있단다. 지우 맘속에도 그런 별이 있을 거야.”

선생님의 목소리가 아득했어요. 어느새 지우는 깜깜한 어둠 속을 훌로 걷고 있어요. 춥고 무서웠어요. 울고 싶어진 순간, 따뜻한 손길이 느껴져요. 보이진 않지만 분명 누군가 지우의 옆에 있어요. 메아리치는 목소리가 들려요.

“지우야, 걱정하지 마. 우린 늘 너와 함께 걷고 있으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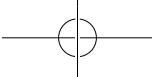
퍼뜩 눈을 떴을 때 지우의 눈앞에 선우가 나타났어요. 아직도 꿈속에 있는 것 같아 지우는 눈을 비볐어요. 그런데 선우 옆에 아빠가 서 있어요. 그 옆에는 엄마가…….

정말로 우리 가족이에요.

“이런 재미있는 구경이 있으면 미리 연락했어야지. 바보.”

장난꾸러기 선우가 혀를 날름대며 말했어요. 엄마와 아빠도 지우에게 따스한 미소를 보냈어요. 오늘 지우를 위해 몰래 한자리에 모인 거예요. 지우는 이제야 선생님이 자신을 여기로 부른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여러분, 이제 곧 유성우 관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따뜻한 복장으로 운동장에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나오자 아이들이 부모님 손을 잡고 운동장에 모였어요. 할머니와 함께 온 아이도, 형이나 누나와 함께 온 아이도 있어요. 그중 예리네 가족도 보였지요.

“어? 한지우 너도 왔구나. 그런데 쟤는 누구야?”

“내 쌍둥이 동생이야. 아빠랑 다른 곳에 사는데, 오늘 같이 왔어. 왜?”

지우가 또박또박 말하자 예리는 멋쩍은 표정으로 물러났어요. 지우네 가족도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아빠가 준비해 온 침낭 위에 쌍둥이가 나란히 누워 별을 맞을 준비를 했어요.

“한선우. 이제부터 네 별명은 폴록스야. 네가 쌍둥이 동생이니까.”

“폴록스? 그게 뭔데? 야, 그리고 겨우 3분 차이밖에 안 난다고.”

“아무튼 그런 게 있어. 원래 네 별명보다 훨씬 낫잖아. 방구폭탄…….”

“쉿, 조용히 해.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지우와 선우가 소곤대는 사이 주위에서 환호성이 일었어요. 아름다운 별들의 잔치가 시작됐나 봐요.

“쌍둥이 자리 유성우가 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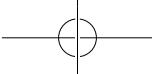
아빠, 엄마가 동시에 하늘을 가리켰어요. 밤하늘에서 별비가



쏟아지고 있어요. 지우와 선우가 똑같이 두 눈을 반짝였어요. 먼 곳에서 우애 좋은 쌍둥이가 별사다리를 타고 이곳으로 내려올 것만 같았어요.

지우가 벽에 걸린 달력을 봅니다. 빨간색 숫자 위에 별이 빛나는 날, 어김없이 둘째 주 일요일이 돌아왔어요.

역 광장에 가득 찬 사람들, 그 안에서 지우는 금세 반가운 얼굴들을 찾아냈어요. 두 사람이 지우를 향해 힘차게 손을 흔



들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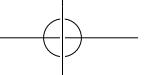
지우는 이제 알아요. 매일 볼 순 없어도, 때론 멀게 느껴져도,
별은 항상 지우 마음속에서 환히 빛나고 있다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볼까요?

1. 매월 둘째 주 일요일은 왜 지우에게 특별한 날일까요?

2. 유성우를 관측하는 날, 담임 선생님이 지우를 시청각
실로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3. 한집에 같이 살아야만 가족일까요? 어쩔 수 없이 따
로 떨어져 살더라도 가족임에는 변함이 없을까요?
'가족의 조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수업을 마치며



자, 신나는 동화 속 여행이 모두 끝났습니다.

어떠셨나요? 즐거웠다고요? 너무 아쉽다고요?

친구들과 나눈 대화는 어땠나요? 동화를 읽고 나서 서로의 생각을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것은 매우 유익한 독서 방법이에요. 어떤 책이든 읽고 나면 그 느낌을 글로 적거나 말로 나누는 것이 좋아요. 그러지 않으면 금세 감동이 사그라지거나 무슨 내용이었는지 잊게 되거든요. 대화할 때는 너무 내 말만 하거나 강하게 주장해서는 안 되는 거 아시죠?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어느 부분이었나요? 각자 좋아하는 동화가 다르고, 느낀 점이 다르더라도 일곱 편의 동화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형제자매가 없는 외동이거나 아빠 엄마가 계시지 않는 어린이라 할지라도 현재 내 곁에 있는 가족은 세상에 둘도 없는 소중한 존재예요. 우리 가족을 위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

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이번 수업 시간을 정말 알차게 보낸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어른이 되더라도 내 가족을 소중히 생각하고 지극히 사랑하는 어른이 되길 바랍니다.

이 책에 실린 동화들은 '2019 인구교육 창작동화 공모전'에 입선한 작품들이에요. 그렇다면 공모전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어떤 심사 과정을 거쳐 당선작들이 탄생했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심사위원장으로 활동한 전세경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본 다음, 입선한 작품들을 직접 창작한 동화작가 일곱 분의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어요.
그럼 어린이 여러분, 다음에 다시 만나요.
더 알찬 수업을 준비해서 찾아갈게요.

모두 안녕!



올해 처음으로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경제TV가 주최하는 ‘인구교육 창작동화 공모전’이 열렸습니다. 인구교육을 주제로 한 첫 공모전인데다 응모 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백 편의 동화들이 출품되어 심사위원들도 작가들의 열정과 관심에 놀랐습니다. 예선을 거쳐 본심에 오른 작품은 스물한 편이었는데, 대부분 독창적 내용의 우수한 동화들이어서 일곱 편만을 수상작으로 선정해야 하는 심사 과정은 몹시 어려웠습니다. 또한 특색 있고 수준 높은 수상작 가운데 대상부터 장려상까지 순위를 정하는 상황 역시 매우 힘들었습니다.

대상을 수상한 <우리 모두 우유 빛깔>은 심사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이번 공모전은 특정한 주제를 제시하고 개최된 것이기 때문에 문학성이나 동화 본연의 완성도도 중요하겠으나 주제에 대한 치열한 문제의식과 고민이 어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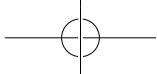
게 작품에 녹여져 있는지도 심사의 주요 관점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상 수상작은 이번 공모전의 취지에 가장 충실하면서도 적합한 창의적인 동화라고 보았습니다. 최민경 작가의 작품에서는 주제의식에 대한 분투를 충분히 엿볼 수 있었습니다. 작가의 다음 작품도 한껏 기대해 봅니다.

인구교육은 인구와 관련된 사회적 현상, 특히 가족을 둘러싼 다양한 삶의 모습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구교육을 주제로 하는 동화란 어린 세대들에게 가족의 진정한 의미와 어떤 가족이 건강한 가족인지를 생각할 수 있게 하는 마음 따뜻한 글들입니다. 우리 사회가 저출산 고령사회와 다문화사회로 변화되면서 가족의 유형 등 겉모습이 다양해짐과 동시에 그 안에 깃든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나 돌봄과 배려 같은 가치들이 더욱 소중해졌다 는 것을 이 동화들을 통해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동화책이 인구교육의 취지에 맞게 다양한 장면과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읽혀지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인구교육 창작동화 공모전’이 해가 갈수록 개성 있고 수준 높은 창작동화의 산파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수상 작가들 모두에게 뜨거운 격려와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심사위원장 전세경 | 공주교육대학교 실과교육과 교수



대상 수상자 최민경

처음 공모 요강을 접했을 때는 이미 마감일이 3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촉박한 시점이었습니다. 평소에 관심 있던 주제였기에 도전해 보고 싶은 욕심은 생겼지만, 한편으로는 물리적인 시간 부족을 핑계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이상하게도 자꾸 생각들이 떠올라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되지 않은 막연한 상념들을 차근차근 다듬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존재하는 인물들이 점점 뚜렷해졌고, 비로소 그들이 만들어 낸 한 편의 이야기가 엮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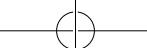
〈우리 모두 우유 빛깔〉의 주인공 하나는 아빠의 재혼으로 새

로운 가족을 맞이하게 됩니다. 평소 ‘이모’라고 부르며 잘 따랐던 새엄마는 훈영이지만, 새엄마가 데리고 온 동생 대한이는 많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대한이는 새엄마가 의료 봉사를 갔던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입양한 흑인 소년이기 때문입니다.

대한이의 까만 피부색에 강한 거부감을 느끼고 갈등했던 하나가 결국 대한이의 아픔과 상처를 이해하면서 대한이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이 동화를 읽는 어린이 친구들도 다양한 가족의 모습에 대해 편견 없이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어울려 만들어 가는 자유롭고 희망찬 사회를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우수상 수상자 이해중

2019년 6월 보건복지부에서 ‘100인의 아빠단’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해 ‘부산 100인의 아빠단’ 3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빠단 공식 카페에 창작동화 공모전 공지가 올라온 걸 보고,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지만 국문학을 전공하면서 ‘글 쓰는 일로 먹고살고 싶다’고 생각했던 청년 시절의 꿈이 몽글몽글 되살아났던 것 같습니다.



‘맞벌이 사회복지사 부부’로 살아가는 저는 최근 아침에 아이들을 유치원에 등원시키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밥 먹이기, 옷 입히기, 머리 묶기 등 하나에서 열까지 아빠에게는 난관의 연속이었죠. 그러다 육아 당사자로서 아빠가 겪고 있는 소소한 일상의 어려움을 동화로 써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어쩌면 ‘소소한 일상의 어려움’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함께 공유되어 아이들 키우기 좋은, 그래서 아이들을 더 많이 낳아 키우고 싶은,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수상 수상자 오지현

자유로운 생각과 관점을 스스로 만들어 가도록 조언해 주시는 김홍기 교수님 덕분에, 꽁꽁 잠재워져 있던 재능을 다시 펼치게 되었습니다.

한의원에서 진료를 하면서 어린이들이 받는 여러 상처에 공감했습니다. 작품은 다자녀 가정의 둘째를 주인공으로 내세웠지만,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에서 관심을 갈구하는 소외된 어린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이들 스스로가 충분히 존중 받고, 사랑 받는다고 느낄 수 있는 세상을 꿈꾸며, 이 동화가 작은 위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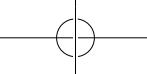
되어 주길 바랍니다. 가족 구성원 간에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서로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너무도 소중한 두 명의 동생들 덕분에 내 삶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해졌음에 감사하고 나 또한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멀리뛰기 에피소드는 체육 천재라는 별명을 가졌던 둘째 동생에게서 소재를 따온 것임을 밝힙니다.

우수상 수상자 윤경숙

인구교육이 다소 생소한 개념이지만, 인구의 규모와 구조가 급변하고 있는 현 시점에 꼭 필요한 교육활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양한 인구교육 방법이 있겠으나 어린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동화로 접근하는 방법이 흥미로워서 공모전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어렸을 적 누구나 한 번쯤은 동화 작가를 꿈꾸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유익한 주제로 동화를 쓸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공모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비밀 말하기 축제> 속 민재처럼 비밀이 아니어도 되는 비밀로 고민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적 이해와 편견 해소에 저의 동화가 조금이나마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려상 수상자 탁교열

공모전 소식을 접했지만 참가할지 말지는 정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와 텔레비전을 보며 얘기를 하던 중 불현듯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이니깐 그렇게 살았지. 지금이었으면 다르게 살았을 거야.”

어머니는 본인 일을 하시면서도 집안일에 소홀함 없이 두 형제를 키우셨습니다. 많이 힘드셨을 테고, 저 역시 그걸 알고 있기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직접 어머니 입으로 그때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속 깊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써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가 많이 바뀌어 가고 있다지만 지금도 많은 어머니들이 이런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가정 내 가사 분담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려상 수상자 배은옥

국내 유명 입양 전문기관의 모금 캠페인을 위한 컨설팅 및 모금 실행을 돋게 된 계기로 입양 대기 아동들에 대한 다양한 사

연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절박한 사정에 비해 실제로 입양 대기 아동들의 상황이나 입양을 준비하는 예비 부모님들의 사정이 충분히 알려지지 못한 것 같아서 관련 내용을 짧게나마 동화로 만들어 공모전에 참여했는데, 뜻밖에 큰상을 받게 되어 기쁘고 영광입니다. 간절한 소망을 가진 입양 대기 아동들과 입양을 바라는 부모님들의 모든 필요와 소원들이 더 널리 알려져서 국내에서 입양이 더욱 활성화 되는 데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장려상 수상자 김지연

어린 시절 저에게 책은 좋은 친구였습니다. 책의 세상에서는 자유롭게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었습니다. 어른이 되고 나서 다시 마음속 작은 아이가 그리워졌습니다. 그래서 동화를 읽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동화를 비롯한 여러 분야의 작품 창작을 위해 노력중입니다. <쌍둥이자리>는 저에게도 의미 있는 작품입니다. 작품 속 지우와 선우처럼 가족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 하는 어린이가 있다면, 이 동화를 통해 작은 위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2019 인구교육 창작동화 공모전 수상 작품집
세상에서 우리 가족이 제일 좋아요

인쇄 | 2019년 11월 25일

발행 | 2019년 11월 30일

지은이 | 최민경·이해중·오지현·윤경숙·탁교열·배은옥·김지연

펴낸이 | 한경준

펴낸곳 | 한국경제신문 한경BP

책임편집 | 유승준

진행 | 최미선·임은정·한순상·이동희·마현숙

디자인 | 정현옥

일러스트레이션 | 샤인

이 책은 보건복지부 한국경제TV와의 계약에 의해

한국경제신문 한경BP가 발행한 것으로

본사의 허락 없이 이 책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사하거나

전재하는 행위를 금합니다.

